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743 1982년 2월 9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uesday, February 9, 1982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FEB 10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신민당 중흥기 맞을듯

『온』주 새 당수에 밥·뢰 의원

7일 온타리오주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토론토 브로드뷰-그린우드지역출신 연방의원(MP) 밥뢰(33)가 대의원3분의2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새 당수로 선출됐다.

밥·뢰(Bob Rae)의원은 재치와 박력이 넘치는 연설과 준수한 용모로 1차투표에서 2천100명 대의원중 1,356표의 지지로 512표를 얻은 리차드·존스턴과 232표의 짐·폴즈를 거뜬히 눌렀다.

새 신민당수 밥·뢰는 당선직후 의료비문제, 높은 금리, 인권문제등을 우선으로 데이비스 보수당 정권을 상대로 싸우겠다고 첫 공격의 화살을 쏘았다.

밥·뢰는 앞으로 수주간 인수인계가 끝나는대로 연방의원직을 사퇴하고, 온타리오주의원(MPP)에 출마, 현재 125온타리오주의석중 21개 의석만 차지하고 있는 신민당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현재 여당인 보수당이 70의석, 자유당은 34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밥·뢰당수는 그동안 연방재정 비평가로서 활약이 컸고, 미디아의 총아였다.

밥·뢰는 지금까지 한번도 신민당이 집권한적이없는 온타리오주가 신민당정부를 가질수 있도록 온타리오주내를 돌아다니며사회민주주의 이념을 팔아보겠다고 말했다.

신민당은 1943년 창당이후 노동계급의 권익옹호를 주창, 이상적인 사회민주사회건설을 부르짖는 젊은당이다. 이번의 당수선출은 마이클·캐시디 전당수가지난81년 온타리오주 총선동부진에 책임을지고 사퇴한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온타리오주 신민당은도날드·맥도날드, 스티븐·루이스, 마이클·캐시디에이어 이번 4번째 당수를 맞았다.

압도적 당선이 확정된후 밥·뢰는 TV카메라와 수만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부인과 열렬히 포옹했고, 패자인 다른 두 후보자와 에드·브로드벤트 신민당당수, 전 온타리오주당수 마이클·캐시디, 그라고 전 당원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는"신민당은 지금까지 정치의 쇼맨쉽을 잘 이용치 못했으며 자신은 이를 보다잘 이용해서 신민당의 이념을 온타리오주 주민에 설득, 신민당의 부흥을 꾀하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밥·뢰(오른쪽)가 온타리오주 신민당 당수로 당선된 직후 연방당수인 에드워드·브로드벤트와 함께 당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군인 53명 사망

제주도서 군수송기추락

(서울6일=연합)5일 제주도 한라산에서 훈련중이던 군수송기 1대가 추락, 탑승했던 53명의 군인이사망했다.

이날 C-123프로펠러 수송기는 한라산 중턱의 훈련지역에 착륙하려다추락, 승무원 6명과 작전참가군인 47명이 모두 숨졌다.

국방부는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인물평

33세의 젊은 당수 밥·뢰

논평과 화술에 특출

온타리오주 신민당의 새당수 로버트(밥)·뢰는 토론토대학 출신의 1948년생, 아버지가 유엔대사를 지냈고, 삼촌과 숙모등이 쇼·비즈니스에 종사, 정치와 쇼무대의 배경을 골고루 가진 미디아를 잘 이용하는 정치인이다.

그는 1978년 보궐선거에서 근소한 표차로 브로드뷰·그린우드 지역 연방의원으로 정계에 발을 들여놓은지 4년만에 온타리오주당수의 자리에 오른 행운아로 68년도에 유명한로즈(Rhodes)장학금으로 옥스퍼드 대학에 유학하는등 수재의 정코스를 제대로밟은 캐나다 정계의 유망주이다.

그는 특히 연설이나 인터뷰중 예리한 논평이섞인 짧은 문장과 유모러스한화술을 능숙하게 구사, 지성인다운 면모로 젊은층의인기를 얻고있다.

가족으로는 올해 32세로 에어·캐나다의 기내사무장인 부인 알린과 6개월된딸 쥬디스가 있다.

서독도 실업사태심각

$53억투입 구제책마련

(본)27년만에 처음으로 서독의 실업자수가 2백만명에 육박하자, 헬무트·슈미트수상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내걸고 1025억 마르크(53억2천만달러)가 투자되는 실업자 구제정책을 입안했다고 발표했다.

슈미트 수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계획은 재정문제를 둘러싸고 정부각료들과 논쟁끝에 어렵게 얻어낸 것이므로 하원은 이를 승인해 달라고 간청했다.

서독의 전국 실업률은 8.2%로 실업자수는 194만9천8백명에 이르렀다. 이 숫자는 전년도에 비해 40% 증가한 것이다.

◇패배후 울상짓는 죤·매켄로.

이반·랜들 정상차지

몰슨테니스, 메켄로에3:1승

세계테니스의 랭킹이 흔들리고 있다. 비욘·보그이후 남자테니스계의 NO. 1으로 군림하던 미국의 죤·매켄로는 지난1월의 볼보대회에 이어 랭킹2위이반·랜들에게 또 패배, 쓴잔을 마셨다.

7일 메이플·립스·가든에서 열린 몰슨세계테니스대회 결승에서 금년 나이21세의 체코출신 이반·랜들은 강한 서비스로 기선을 잡아 매켄로를 7:5, 3:6 7:6, 7:5로 물리치고 상금12만5천달러를 차지했다.

이날 가든에는 13,400명이 입장, 대회최초로 만원을 이루었다.

최근 테니스대회에서 10전9승을 올린 이반·랜들은 "아무도 나의 적수가 없다"고 장담했다. 이번대회 예선에서 랜들은 이제까지 9연패를 당했던 지미·코너스에게 6:3, 6:2로 가볍게 승리했었다.

매켄로와 랜들은 7일까지 모두 11번을 싸워 랜들이 다섯번 승리를 거두었으나 81년 랜들이 [illegible] 오픈에서 승리를 거둘때까지는 4패로 매켄로에게 당해만 왔다.

이날 경기의 셋·스코아는 3:1이나 랜들은 24게임에 148점, 매켄로는 22게임에 143점을 얻어 경기자체는 「시소」였다.

두선수 모두 서비스·파우어를 과시, 랜들은 에이스·셋을 17번 터트렸고매켄로는 16번을 기록했다.

이번 몰슨 남자테니스대회에서는 세계8강이 4명씩 두조로 나뉘어 예선을 벌였다.

랜들은 호주 맥나마라와 지미·코너스등과 조를 이루어 3승을 거두고 준결승에 진출, 미국 게릴라이투스를 세트 스코아 2:0으로 물리치고 결승에 올랐다.

매켄로는 게릴라이투스와 조를 이루어 준결승에 진출, 호주 맥나마라를 물리치고 결승에 올랐다.

◇랭킹1위 매켄로를 물리친 이반·랜들

매년 14만명선 이민받아

캐나다, 향후 3년 계획

캐나다는 향후 3년간 매년 13만~14만5천명의 이민을 받아들일 계획이다.

이것은 81년 이민숫자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작년도 캐나다에서 받아들인총 이민자는 12만2천명이다.

로이드·액쉬디 이민장관은 캐나다가 받아 들일 이민자수는 82년에 13만~13만5천명, 83년에 13만4천~14만4천명, 84년에는 14만4천~14만5천명선이라고 밝혔다.

액쉬디는 캐나다는 세계적으로 이민과 난민을 받아들이는 주요3국중 하나가 되었다고 말했다. 다른 2나라는 미국과 오스트렐리아다.

액쉬디는 비록 3년간의 이민 수급계획을 세웠으나 난민 유입숫자는 세계정세의 변화로 한번에 일년 이상 계획을 세우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오.
미도파백화점
B)536-1692
R)245-3539
454 BLOOR ST. W. TORONTO. ONT.

강찬영 변호사
537-3171 ~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53 BLOOR ST. W(한국관앞)

IATA 천우여행사

모국방문에 특별봉사

1982년 2월1일~1982년3월31일까지
기간중 당여행사를 통해서
서울(또는 부산) 왕복항공권을
구입하는 분에게
특별봉사 합니다.

HERALD TRAVEL SERVICE
720 SPADINA AVE. SUITE 104
(AT BLOOR TORONTO, ONT
B)416 928-3335 R)651-8081 김현두

유럽단체관광모집

출발일자 : 제1진~1982. 4. 28(수)
제2진~1982. 6. 23(수)
귀환일자 : 제1진~1982. 5. 19(토)
제2진~1982. 7. 10(토)
방문도시 : 런던③, 암스텔담①, 프랑크푸르트①, 인스부룩크①, 베니스①, 후로렌스①, 로마②, 니스①, 루쎄른①, 빠리② (○ 안은 유숙일 수)
요 금 : 제1진~$1,570
제2진~$1,730
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1급호텔숙박(2인1실)
○대륙식아침(12회) 저녁식사(7회)
○구라파내 교통및 중요관광과 입장료
예 약 : 1인당$300 1진1982. 3. 26까지
2진1982. 3. 31까지
*예약금은 취소 할경우 반환치 않음
잔액지불 : 1진~1982. 3. 26
2진~1982. 4. 30
기 타 : 안내는 영어로만 함
요금은 예고없이 변동함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TORONTO CANADA M5S 1A5

실종어린이 싸늘한 시체로
등교길에 유괴 당한듯

8살난 남자어린이가 살해된채 3일 스카보로 지역 한 공장근처 눈더미에 버려진채 발견됐다.

스카보로 브로드 브릿지 드라이브(Broadbridge Dr.)에 사는 레에쉬·굽타로 밝혀진 이 어린이의 시체는 이날 하오 4시30분경 그의 집에서 20여킬로미터 떨어진 새프트 밧데리공장(200 Middle field Rd.)뒤에서이 공장 종업원들에 의해 발견됐다.

집으로 돌아가던 종업원들은 핀치와 멕코완이 만나는 공장밀집지역의 막다른 길 끝에서 옷을 입은채 누워 있던 레에쉬군 시체를 발견, 공장안으로 옮긴후 경찰에 신고했다.

부모들은 레에쉬군이 3일 하오 늦도록 학교(William G. Davis Public School)에서 돌아오지않자 이웃을 헤매다가 경찰에 실종신고를 냈었다.

비탄에 빠진 레에쉬의아버지는 그의 아들이 살해당할 아무런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고 말했다.

경찰은 아직 살인용의자의 단서를 잡지못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3일 학교에서는 레에쉬군이 결석한 것을 알고도 그의 집에 전화를 하지 않았다. 학생이 이유없이 결석하면 학교에선 학생의 집에 전화를 하는 것이 상례였다.

교장 델·핏서는 레에쉬군이 그전날 아파서 학교에 오지 않았기에 사건 당일도 아파서 못오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레에쉬군의 어머니는 사건전날인 2일 하루만 결석계를 냈었다.

3일 정오경 레에쉬군의 어머니가 아들이 점심식사하러 집에 오지 않자, 학교에 전화, 비로소 실종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어린이가 아침에 집을 떠나 학교로 가는 사이 범인에 유괴당한 후 끈으로 교살돼 문제의 지점에 유기 됐으리라고 추 정하고 있다.

한편 3일 오전중 레에쉬의 시체가 발견된 후 누군가가 그의 부모에게 전화했으나 아무런 말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살해된 레에쉬군의 부모는 11년전 인도 펀잡지방에서 이주, 토론토동부 포트호프(Port Hope)에서 레스토랑과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다. 자녀로는 레에쉬군과 2살짜리 레마양이 있다.

친척들에 의하면 레에쉬는 평소 조심성있는 아이로 낯선 사람과 이야기 하지 않도록 부모에게 주 의받아왔다. 그는 또 플로어하키를 즐겨했으며 아주똑똑한 어린아이로 알려졌었다. ……

한국일보 533-2361

◇철모르는 여동생 : 너무어려 오빠의 비극적 죽음도 모른채 레마·굽타(2세반)가살해된 8살난 오빠 라예쉬 사진옆에 서있다.

「장학의 밤」현미출연
장학협조와 쇼 2중주

오는 27일(토) 하오6시30분, 캐나다한인장학재단( )은 다운스뷰·홀리데이·인(토론토 시청뒤)에서 쇼와 만찬·댄스를 겸한「장학의 밤」을 연다.

장학기금 마련을 겸한이 날 행사에는 한때 한국 가요계에 "방안개"등 힛트곡으로 인기의 초점이 된 가수 현미양을 비롯, 노래와 코메디의 양철군, 프린세스·나토마양의 아라비아춤, 더프니·브라더스의 쌍동이무용, 5인조 한인밴드의등장등 다채로운 연예프로와 서울왕복 항공권등 수북한 경품을 곁들여 엄동설한의 밤공기를 호뭇한 열기로녹여줄 것이다.

일반 연예인쇼와는 달리 우리의 2세들을 위한 장학면의 재정적 힘을 쌓기 위한 이 자선흥행은 관객들이 하룻밤 유쾌한 연예를 즐기면서 겸해 장학기금을 돕는 뜻있는 행사이다. (입장료 $30)

지난 78년 창설된 장학재단은 현재 이사 32명, $3만여의 장학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모국 4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보내줬고, 캐나다 교포학생 18명에게도 학비를 대주는 업적을 쌓았다.

한편 토론토대학생회 가 교포고교생 상대로 실시하고 있는 수학경시대회 경비등을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캐나다 전국의 각한글학교에서 각학교당 1명씩 선발, 3년째 장려상을 주어온 실적이 있다.

우리 2세들을 위한 일찬 보살핌을 힘쓰는 장학재단은 교포들이 앞다투어 도와야 할 소중한 단체로, 기금마련에 널리 범교민적협찬이 기대되고 있다.

서울시민 평균수입
1인당 2,099달러

(서울 4일=연합)서울시민의 작년도 1인당 평균수입은 2,099달러로 전국1인당 평균수입 1,636달러 보다 436달러가 많다.

4일 발표된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이같은 숫자는 80년도의 1,934달러 보다 8.5%, 79년도의 2,031달러보다 3.3% 증가한 것이다.

80년도 서울시민의 연평균 수입이 그 전년도보다 4.8% 감소한 것은 그 해 경제의 마이너스성장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경제기획원에 의하면 서울시민의 지난 3년간 연평균수입은 전국평균 을 훨씬 앞질러 79년 31.4% 80년 30.6%, 81년에는 28.3%가 높았다.

포드자동차 환불제실시
판매촉진에 고육계

(LA지사)포드자동차 회사는 자동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2개월동안 대폭적인 리베이트(환불)을 실시한다고 2일 발표했다.

포드사는 이 새로운 리베이트는 2월2의부터4월3일까지 2개월동안 실시하며, 리베이트 금액은 차종에 따라 750달러내지 2천달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포드사가 발표한 차종별 리베이트는 ▲머스탱, 카프리 -750달러 ▲페어몬트, 제퍼르-750달러 ▲그라나다 쿠거-750달러 ▲경 트럭, 밴-750달러 ▲린컨 콘티넨탈 고급형-2천달러등이다.

포드사의 판매담당 부사장 필립·벤톤은 『GM 사가 리베이트제를 실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리베이트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GM사는 지난주 판매난을 해소하기 위해 리베이트제를 실시했다.

이처럼 자동차 메이커들이 리베이트제를 들고 나오는데 대해 자동차업계분석가들은 리베이트제가 단기적으로는 판매를 촉진할 것이나 리베이트기간이 끝난 뒤에는 판매가 격감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장기적으로 판매를 개선하는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포드사는 이번 리베이트에 앞서 지난 1월중순 포드 에스코트와 머큐리 링스모델에 대해서 2년간, 또는 2만마일 동안에 무료정비를 해줄 것을 제의하는 동시에 5%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었다.

김일성 중태설
김정일, 김성애 암투심각

(도쿄3일=연합) 북한의 주석 김일성이 중환에 있으며, 그의 상태는 아내 김성애와 아들 김정일 사이의 점차 고조되는 권력다툼으로인해 악화 되어가고 있다 는 유언비어가 평양에 널리 퍼져있다고 재일 민단계신문「통일일보」가 2일 보도했다.

동신문은 최근 평양을방문한 소식통을 인용, 김일성은 재일조총련에 오는16일 김정일의 41회생일을축하하는 파티규모를 줄일것을 지시했다.

동신문은 김이 그의상속자 김정일의 방약무인한태도와 김정일과 김일성의 2번째부인 김성애 사이의고조되는 적대감에 분노, 이같은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이곳에서 풀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림픽 치른지 6년…
몬트리얼 메인스타디움
지붕 복개싸고 진통
"설계부터 잘못됐다"비난

(몬트리얼30일 연합) 1976년도 올림픽이 끝난지도, 이미 6년이 지났지만 몬트리올 올림픽경기장은 막대한 경비를 들여가며 공사를 완성시킬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를 둘러싼 새로운 논란 속에 아직도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다.

완공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1월초 프랑스로부터 10억달러 규모의 총공사비중, 2백만달러가 소요되는 캔버스 지붕구조물이 몬트리얼에 도착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문제는 이 지붕구조물이 도착하긴 했지만 이것을 올려놓을 160m 높이의 콘크리트 탑이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콘크리트탑은 경기장의 기초가 너무 약해 더이상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다는 사실이 건축가들에 의해 밝혀진 뒤 중도에 공사가 중단됐었다.

이에 따라 경기장 완공계획은 퀘벡시가 다음 조처를 검토할 때까지 대기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다.

경기장 건설문제에 대한 비판자들은 진·드래퓨 몬트리얼 시장이 10년전 올림픽경기장 건설계획을 처음 발표한 이래 공사과정에서 우유부단과 부정확한 판단이 계속되는 바람에 엉성한 공사의 대표적인 본보기가 되고만 것이라고 비꼬고 있다.

경기장 지붕구조에 반대하는 비판자들의 비위를 건드린 것은 당초의 예상공사비 1억2천만달러보다 9배나 더많은 비용을 이미 들인 이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액수의 추가자금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이다.

경기장 운영권을 갖고있는 올림픽설비위원회(OIB)의 계획대로 경기장을 완공하기 위해서는 6천480만달러의 추가자금이 소요되며 탑의 보수및 완성작업과중단상태에 있는 캔버스 지붕을 완성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몬트리얼시 자문위원 아우프·데어·마우어씨는 미국 디트로이트시의 실버·돔 경기장 건설비 6천5백만달러와 맞먹는 금액이라면서 『우리들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공사를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완공하려면 $6천만 들어
포기해도 91년까지 빚갚아야

그러나 클로드·샤롱 퀘벡당 원내총무겸 올림픽담당상은 주정부가 경기장완공을 포기한다면 지금까지진 부채를 담배세와 같은 특별세를 징수하여 계속 갚아나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퀘벡주민들로서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을 것이라면서 공사강행을 역설하고 있다.

몬트리얼 올림픽 경기를 둘러싼 최대관심사중의 하나는 퀘벡주와 몬트리얼시가 다같이 올림픽유치에 따른 부채를 아직도 갚아 나가고 있으며 이같은 변제가 적어도 1991년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만약 주정부가 경기장에 지붕을 씌우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에도 기존경기장을 계속 사용하기 위한 구조상의 잘못을 바로잡는데 약2천1백만달러의 자금이 소요된다.

퀘벡주 야당지도자인 개스퍼드·포트스씨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올림픽경기장 건설과 관련한 가장 큰 실수는 주정부가 기본적인 결정인 골격을 마련하지 못한데 있다고 주장했다.

◇6년이 지나도 완공을 보지못한 몬트리올 메인스타디움。조감모와같이 설계대로 탑을세우고 지붕을 완전히 덮으려면 6천만달러의 추가자금이 소요된다。

추위·폭설정보
한파피해에 대비

캐나다의 겨울은 춥고 눈이 많이 온다. 눈이 많이 오면 쉽게 도로가 막히고, 몇모르고 길을 나섰던 자동차는 오도 가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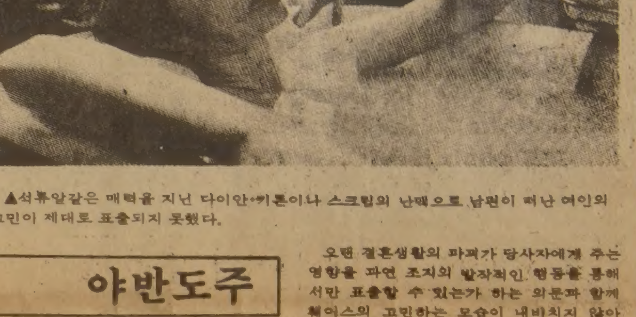
이런 불편과 위험을 덜기 위해 온타리오 전역에 걸쳐「겨울도로정보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모든 프로빈셜(Provincial)및 제2(Secondary) 하이웨이의 상태에 대한 최근정보를 갖고 있다.

이 정보는 겨울 동안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하면 얻을 수 있다.

토론토(Toronto) 248-3561
하담(Chatham) 354-7504
런던(London) 681-2047
스트랫포드(Stratford) 271-8321
해밀턴(Hamilton) 639-2427
오웬 사운드(Owen Sound) 376-9683
포트 호프(Port Hope) 885-6351
킹스턴(Kingston) 544-2523
오타와(Ottawa) 745-7049
밴크로프트(Bancroft) 332-3621
헌츠빌(Huntsville) 789-4483
노스 베이(North Bay) 474-0044
뉴 리스커드(New Liskeard) 647-8104
코크래인(Cochrane) 272-5775
서드버리(Sudbury) 522-0388
수센마리(Sault Ste. Marie) 256-2855
선더 베이(Thunder Bay) 475-4251
케노라(Kenora) 548-5910

이사 하셨읍니까?
● 주소변경을 잊지 마십시오.
독자번호와 새주소를 곧 알려주세요.
한국일보 독자부
533-2361-4



▲석류알같은 매력을 지닌 다이안·키튼이나 스크린의 난맥으로 남편이 떠난 여인의 고민이 제대로 표출되지 못했다.

야반도주
오랜 結婚생활이 파괴되는가를 그려

새映画

「Shoot the Moon」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이 과연 파괴될 수 있는 가를 시험해 보기 위해 어설픈 감정과 감상 그리고, 지어낸듯한 내용을 그 도구로 사용해가며 2시간이나 대수술을 했으나 잔뜩 벌여놓기만 하고 마무리를 못짓고 말았다.

화 잘내는 작가 조지·던햄(앨버트·휘니)과 아내 훼이스(다이앤 키튼)는 장녀 쉐리(예이나·힐)등 네 딸을 둔 평범한 부부.

조지의 애인 샌디(카렌·알렌)를 놓고 조작된듯한 싸움을 대판 벌이고 조지는 집을 나온다.

도대체 조지가 뭘 하는사람인지 애매모호한 단점까지는 지나쳐 버릴 수 있다 해도 이들이 왜 헤어져야만 하는가가 설명되지 않아 결별 이후의 고뇌와 분노가 실감이 안간다.

염치 없는 조지는 집을 나와서도 부인,아이집이 모두 아직도 자기것인양 권리주장을 하고 훼이스와 새 애인 프랭크(피터·웰러)와의 관계에도 노발대발하며 감정을 추체 못해 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멜로드라마 냄새만 풍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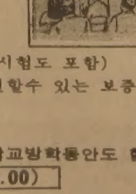
오랜 결혼생활의 파괴가 당사자에게 주는 영향을 과연 조지의 발작적인 행동을 통해서만 표출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과 함께 훼이스의 고민하는 모습이 내비치지 않아 영화가 몹시 일그러져 보이는데다 조지가 떠나자 마자 나타난 테니스코트 건설업자인 프랭크와 훼이스간의 사랑의 연결도 자연스럽게 엮어지지가 않고 있다.

지리하다고 느낄 정도의 위험수준을 오락가락하는 이 영화에서 그 느슨한 진행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은 네딸들, 그중에서도 쉐리가 부모의 방황에 시달리는 역을 잘 소화해내 「애들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이 어쩌나 명랑한지 샌디에게 「아버지와 자는 기분이 어떠냐」고 묻는데는 장내가 폭소를 터뜨린다.

그림같은 풍경이 전편에 깔리는 촬영이 뛰어난다.

심각한 문제를 받은 감독 앨란·파커가 핵심을 못 찌르고 겉만 훑다 말아 아쉽다.

MGM작으로 등급R.

운전교습
SOUTHERN ONTARIO DRIVER TRAINING CENTRE
운전을 배우실 분들! 아래와 같이 3가지 종류가 있으니 택해 보세요.

1. 완전코스($199.00)
● 25시간의 실내강의
● 10시간의 운전교습(운전시험도 포함)
● 차보험 액을 최대로 할인할수 있는 보증서 발급
● 인캄텍스 공제
※ 저녁과 토요일 그리고 학교방학동안도 함.
2. 짧은(MINI)코스($69.00)
● 3번의 운전레슨
● 운전시험때 차대여해줌
3. 씽글(SINGLE) 레슨($15.00)
● 한번의 레슨
※ 운전시험때 차대여는 $15.00
2489 BLOOR ST. W. STE. 210
(JANE지하철 근처임)
766-4441, 766-4644
월~금 : 9시~6시30분, 토 : 9시~1시까지

MISS KOREA
제7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일 시 : 1982년4월24일(토)
6:30P.M. 칵테일
7:30 〃 디 너
장 소 : 다운타운 Holiday Inn
주 소 : 89 CHESTNUT ST.
사회자 : 한국저명 연예인

※미인 출전신청 접수중
연락처 : 한 인 회 755-9288
한국일보사 533-2363
주 최 : 토론토지구한인회
단독후원 : 한국일보사

김인규회계사무소
개 업 안 내
지난 7년 동안 해오던 회계업무를 더욱 충실히하기 위하여 아래장소에 1월1일부터 사무소를 개업하였읍니다.
Computer, Xerox등을 마련하여 편의를 도모코자 하오니 여러분의 사무실로 아시고 배전의 애호와 편달을 바랍니다.
ACCOUNTING OFF. I. K KIM, RIA
501 Yonge St. Suite 207 (Yonge & College)
Toronto, Ont.
☎ : 960-5736(B) 844-0178(R)
각력 : 1964년 서울상대졸업
1975년 RCA RIA
1981년까지 12년간 카나다제조업체에 Accountant, Controller로 근무
1982년 1월 일
공 인 회 계 사
김 인 규 배

信徒도 침실서 즐길自由

약삭빠른 宗敎서적상들 聖經이용 性안내서出版

▲에로틱한 TV장면 「다이네스티」의 한컷. 약삭빠른 종교서적상들은 성교전 전희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성을 즐기지 말란 법은 없다. 그들은 일반사회법 이외에 성경이라는 또 다른 법이 존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을 뿐이다.

성경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혹은 저렇게 해서도 안된다고 크리스찬의 목과 마음을 규제하는 귀서이 많기 때문에 성생활을 추더 즐기고 싶은 크리스찬 부부들은 그야말로 침실속에서 다시 구원(Born Again)을 받아야 할 입장에 놓였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얻을것이요」라는 산상수훈이 있는 신약성경은 본질적으로 복음서이다. 따라서 성문제에 있어서도 크리스찬에게 복음을 주지 말란 법은 없다.

드디어 복음정신을 가진 약삭빠른 종교서적상들이 성경에 입각한 성생활안내서를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다.

크리스찬들을 위한 성생활안내서에 의하면 크리스찬부부들도 다른 비종교적 부부들처럼 성교시에 조기사정을 한다든가, 올바른 체위를 몰라 고민하는등 성문제를 갖고 있다.

크리스찬 성생활안내서를 쓴 저자들도 세속적인 비종교적 카운슬러처럼 똑같은 조언을 하고 있다. 이를 테면 정관수술등 산아제한을 용인하고 있다.

차이점은 성생활안내에 성경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점 뿐이다.

크리스찬들을 위한 성생활안내서 가운데서도 가장 장난기가 서려있는 재미있는 책은 찰리와 마다·쉐드가 함께 쓴 「침실에서의 축하」.

배우자끼리 俗世서즐기는 여러方法사용허락

「솔로몬노래」는 体位로갖는즐거움 가르친다고

학자들은聖經을 性생활과 결부 당치않다 反駁

저자들은 크리스찬부부들이 성교를 갖기 전에 찬가인 「솔로몬의 노래」와 다른 호색적인 성경귀절들을 먼저 읽어보라고 권하고 있다.

솔로몬의 노래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한 귀절을 소개하면 「당신의 포동 포동한 넓적다리는 진주와 같다」는 표현이 있다.

찰리와 마다·쉐드는 성문제상담가들이다.

팀과 베벌리·라헤이는 「가족생활에 관한 세미나」에서 청중들에게 「성경책이야 말로 인간의 행태에 관해 쓴 책 가운데 가장 좋은 책」이라고 다짐할 정도.

그들이 쓴 「결혼의 행위」도 성교전의 전희를 합리화 시키는 성경귀절을 인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잠언 5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다음과같은귀절이 인용되고 있다.

「그녀의 풍만한 젖가슴은 그대를 항상 만족시키니 그녀의 사랑에 항상 도취되어 있을지어다.」

精管수술·產兒제한등 世俗的인 방법도 용인

聖經이 禁하는건 婚前性交와 간음 뿐이라고

性交前 前戱도 합리화시키는 귀절 있다고도

팀과 베벌리·라헤이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은 비기독교신자들보다 일반적으로 더 만족한 성생활을 하고 있다.

문자상의 표현만을 감안한다면 성경은 섹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크리스찬 성생활안내서들을 성경이 타부로 금하는 행동은 결혼전 성교와 간음등 두가지라고 밝히고 있다. 이 두가지 금기 이외에는 무엇이나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팀과 베벌리·라헤이는 갓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상대방의 욕구를 알기 위해 서로 수음을 해주도록 권하고 있다. 앞서말한 찰리와 마다·쉐드는 항문과 입을 통한 성교도 허용하고있다.

아칸소의 내과의사 에드·휘트와 아내 게이는 다른 성생활안내서저자들보다 더 전통적이고 보수적이다. 그들이 쓴 「쾌락을 위해 지도된」이라는 성안내서는 아내는 백퍼센트 남편에 순종해야 한다 는 바울사도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휘트부부는 솔로몬의 노래가 성교의 즐거움을 강화시키는 이상적인 체위를 아내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로서 「그의 왼쪽손을 나의 머리밑에 두게 하고, 그의 오른손으로 나를 포옹하게 하라」는 귀절을 들고있다.

성경은 입으로 즐기는 성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휘트만부부가 밝힌 이유에 의하면 입으로 성교를 하면 남편과 아내가 성교시에 그만큼 말로 애정을 표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비기독교적 성전문가들을 불신하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성경에 입각한 성생활 안내서가 확실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귀절을 항상 인용하기 때문에 크리스찬 심리학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일리노이주 휘튼칼리지 심리학과장 데이비드·벤너는 성경이 인간생활을 규제하는 법이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성경을 자세한 성생활안내서로 이용한다는 것은 마치 성경을 원자물리학 교과서로 사용하는 것처럼 탕치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성생활안내에 복음성경을 이용하는 문제로 논란을 펴는 부부들은 별로 없다.

팀과 베벌리·라헤이는 「결혼의 행위」라는 성생활안내서에서 "만약 성생활을 즐겁게 하는 모든 수단이 실패하면, 기도하라"고 크리스찬에 알맞는 훌륭한(?)조언을 하고있다.

▲기독교 신도도 침실서는 즐길 자유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있다. 성경은 혼전성교와 간음만을 금한다는 주장이다.

연예短信

시네스피어 70미리영화제

수퍼맨·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등

온타리오 프레이스의 70미리 영화관 시네스피어는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대형 스크린에 맞는 인기영화 프로를 골라 상영한다.

시네스피어는 토론토 에서 최대의 스크린을 가진 영화관으로 6-Track의 특수음향시설로서 관람객들로 하여금 보다 실감을 느끼게 해주는 가족영화관이다. 토론토의 자랑거리중하나로 온타리오·플레이스안의 대형 알미늄 공처럼 생긴 건물이다.

입장료는 성인(18세 이상)$4, 청소년(13~17세)$3.50, 어린이(12세이하)$2, 노인 $1.50이며 온타리오·플레이스 파킹장을무료로 사용할수 있다.

상영시간은 수~금요일은 오후7:00, 9:30두차례이고 주말인 토, 일요일은 오후 3:00, 7:00, 9:30세 차례이다.

매주 바뀌는 2,3월중 프로는 다음과 같다.

2월10, 11, 12, 13, 14일	수퍼맨II(F)
2월17, 18, 19, 20, 21일	스타·트렉(F)
2월24, 25, 26, 27, 28일	Altered States(R)
3월3, 4, 5, 6, 7일	현대 묵시록(R)(Apocalypse Now)
3월10, 11, 12, 13, 14일	현대 묵시록
3월18, 19, 20, 21일	바람과함께 사라지다(F)
3월24, 25, 26, 27, 28일	외인계(Alien)(R)
3월31, 4월1, 2, 3, 4일	Out Land(R)

(F : Family, R : Restricted 바람과함께 사라지다는 영화길이가 길어 오후 7시 1회만 상영한다.)

가정의 벗 한국일보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9. mo. 구독료(선금)연 $99 월$9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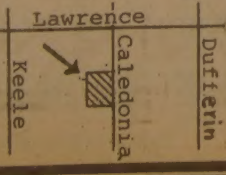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DOMINION SMALLWARES

~~~ CASH & CARRY에 한함 ~~~

Feb.8-Feb.20		Spec.
Dare bag candy	12x 1.29	9.19
Y & S twizzler	70x5¢	1.85
Hersey almond choco / " peanut butter cup	36x40¢	9.29
Moirs valentine cinnamom hearts	24x40¢	5.05
" " marshmallow hearts	24x40¢	5.05
Allans devil top tub	48x10¢	3.16
Allans 2/5¢ kiddie pops	240ct.	3.95
" " " "	101ct.	.90¢
Planters mixed nut	350g	3.55
" cocktail peanut	350g	2.05
O-Pee-Chee bazooka grape,peroo,cherrgum	36x10¢	2.37
Delsey toilet tissue paper	24x2's	17.45
Hi-dri towel	18x2's	17.99

DOMINION SMALLWARES
920 CALEDONIA RD.
789-7214(MR. 김)



춘계 대방매

(NORITAKE DINNER SET)

*토론토 내에서 EATON'S와 SIMPSON'S 그리고 저희 AMIK 세곳에서만 특별히 작년 가격으로 재고가 떨어질때까지 판매하고 있읍니다.

*저희 가게에서는 작년세일가격+5% OFF 합계 작년가격의 35% OFF이니 가격 비교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저희 가게에서 구매 하세요.

*기타 많은 NORITAKE제품 세일 중입니다. 일차 왕림 하시어 무엇을 싸게파는지 구경오세요.

AMIK CRAFT SHOP

상점소재지 : 4841 YONGE ST. (Yonge과Sheppard의 Sheppard Centre내)
전 화 : 221-5990 Mrs. 고
~~~

사진으로 본 오늘의 뉴스

◇즉위30년—1952년 아버지 조지6세에 이어 영국여왕에 오른 에리자베스2세가 올해로 즉위 30년을 맞는다. 사진은 왕위에 오른 다음해, 버킹엄궁전앞에서 애마「윈스턴」을 타고 기마대를 사열하던 젊은 여왕 〈AP〉

◆사뽀로의 눈잔치—일본의 큰 겨울행사인 사뽀로·스노우·페스티벌에서 일본 TV 출연 인물인 아랄·찬이 관광객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번 33회 페스티벌에는 1백 90개의 눈조각품등이 전시되었다고. 〈일본—UPI〉

◆산타모니카에 출현한 푸른상어—라이프가드 위스덤씨가 산타모니카비치근처에 나타났던 7피트길이 상어옆에 앉아있다. 한 서퍼에 의해 처음 발견된 이 상어는 그때 이미 머리에 총상을 입고있었으며, 라이프가드들에 의해 비치로 유도된후 숨을 거두었다. 〈산타모니카—AP〉

◆브룩인형—여배우 브룩·쉴드와 「투나잇·쇼」의 쟈니·카슨이 새로 나온 브룩인형을 놓고 환담하고 있다. 이 브룩패션인형은 인형가격이 10달러에서 12달러, 의상한벌가격이 3달러에서 6달러. 〈버뱅크·캘리포녀—AP〉

◆교황알현—프랑크·시나트라의 부인 바바라·막스가 수요일 바티칸의 오디언스·홀에서 교황을 알현하고 있다. 바바라·막스는 매주한번씩 열리는 일반인알현시간에 교황을 만났다. 〈바티칸시티—UPI〉

◆아슬아슬—조마조마하게 공중에 떠있는 쓰레기수거트럭으로 부터 쓰레기수거원이 하나씩 구출되고 있다. 이 토럭은 쉴킬익스프레스웨이 비탈부분에서 난간을 받고 간신히 걸쳐있었던 것인데, 구조된 3명중 한명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다. 〈필라델피아—AP〉

◆기발한 생일선물— 1백1회 생일을 맞은 댄·놈나씨가 생각지도않은 생일선물을 받고 흐뭇해하고있다. 서프라이즈·기프트는 다름아닌 벨리댄서의 댄스. 놈나씨는 지금도 혼자 가구수리상을 경영하고 있다. 〈비버톤·오레곤— 〉

◆무사귀환 축배—2일 쿠바로 강제납치 당했던 에어플로리다기의 승객들이 키웨스트로 무사귀환한후 축배를 들고있다. 올들어 에어플로리다기의 두번째 재난이었으나 이번엔 아무 피해없이 무사히 끝났다. 〈키웨스트—AP〉

◆최우수 배우의 미소—일요일저녁 뉴욕영화비평가상시상식에서 최우수배우상을 수상한 버트·랭카스터가, 딸 조안나와함께 미소짓고있다. 랭카스터는 「아틀란틱시티」에서의 호연으로 수상했다. 〈뉴욕—AP〉

✡✡ 하르빈한약상사 ✡✡

새해교민께특별봉사

- 20년간 한의사 경력(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 하르빈한의대학 교수
- 정확한 진단과 처방
- 중국본토의 한약사용

서 춘 봉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536—6854(B)
743—0752(R)

石油類값 自由化

全대통령、動資部보고받아 "脫石油·에너지節約 力點"

◇全斗煥 대통령이 李宣基동자부장관 (서있는사람)으로부터 새해업무보고를 받고있다.

流通부문 政府개입 最小化
86년까지 原子·水力발전소 17基건설

全斗煥 대통령은 3일하오 청와대에서 동자부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李宣基 동자부장관은 올해 脫石油와 에너지절약에 최대역점을 두고 규제위주로 되어있는 에너지가격정책을 지양하고 자유경쟁원리를 도입,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생활에 불편을輕減시켜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동자부는 오는 86년까지 에너지절약목표를 당초 5%에서 10%로 높여 추진하고 油價의 自由化와 전국영업용택시의 全面 LPG化를 실시하며 脫石油電源개발을 적극추진, 86년엔 發電原價를 올해 kw당 49원50전에서 86년엔 34원으로 떨어뜨려 싼전기를 공급하고 25평미만의 신축주택에도 斷熱材사용을 의무화 시키기로했다.

55만세대 도시가스、택시 모두LPG로
發電原價 KwH당49원서、86년 34원으로

동자부는세계에너지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있는 현재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 지금까지 정부가 규제해온 원유도입과 유통부문에 대한 정부개입을 최소화, 원유도입과 국내 석유류제품값을 자유화시킬 계획이다.

동자부는 油價管理改善研究班을 편성, 상반기중에 개선방안을 수립해서 메이커별 대리점、주유소별、지역별로 휘발유등 석유류제품값이 달라지도록 자유화시킬 계획이다. 올해 63만톤의 LPG를 공급, 5만4천대의 영업용택시를 LPG化, 사실상 전국영업용택시의 연료를 LPG로 대체시키며 55만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서울올림픽에 대비, 86년까지 京仁지구80만세대에 LNG를 공급하는 동시 경기장시설, 임원촌, 주변주택가등을 완전히 가스화시키기로 했다.

탐사·시추사업도 확대, 대륙붕 제4광구와 7광구5소구에 각각 1개공, 인도네시아 西마두라해역에 4개孔등 6개孔을 뚫고 7광구 7소구에 물리탐사를 실시하며 페루 과테말라등 산유국내 鑛區확보도 적극추진키로했다.

전력부문에서는 오는86년까지 9조3천6백2억원을 투입, 원자력·석탄·수력발전소17基(1천63만kw)를 건설, 발전설비의 석유의존도를 현재74%에서 86년엔 26%로 줄이고 발전원가도 현재 kwH당 49원50전에서 34원으로 떨어져 싼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계획이다.

탄광과연탄공장의기계화와 가격체계의 개선으로 炭質을 높이고 해외자원도 單純輸入에서 開發輸入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동자부는 산업과 발전용연료의 脫石油, 에너지효율의극대화로 당초 86년까지 5%로 되어있는 에너지절약목표를 10%로 올려, 약8천5백만톤 (석유환산톤) 인 30억달러 상당의 에너지를 절약시킬 계획이다.

이를위해 에너지 多消費産業엔 강력한 행정조치와 금융세제지원을, 가정·상업부문엔 자율적인 절약유인제도를 펴나가기로 했다.

"경제死活 技術革新에"
全대통령指示 中小企業 國際競爭力 지원

全斗煥 대통령은 3일상오 청와대에서 商工部와 動資部로부터 새해소관업무계획을 각각 보고받았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徐錫俊상공장관과 관계국장5명, 金炯培공업진흥청장으로부터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받은뒤 『中小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수있도록 기술및 경영상의 현장지도를 적극적으로강화하고 이들中小기업이 생산하는 각종제품, 특히 部品의 수출을 늘려나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고 『中小기업과 大企業간의 系列化에도 각별한관심을 기울여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또 『기술혁신, 생산성향상, 品質관리는 오늘날 한국경제의 死活이 걸린 핵심과제』라고 거듭강조하고 『품질관리등에 있어서는 우리실정에 맞는 품질관리활동을 적극펴나가도록 주력해달라』고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수출과 관련 『赤字내지 不實수출을 시정할수있도록 시책을 강화해야 할것』이라고 말하고 『현재 수입자유화가 75%에 이르고 있는데 수입자유화란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국내기술향상을 위한 자극제로, 또 物價안정을위해 추진되는것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특히 상공부소관 認許可업무는 정부처간의 협조강화로 대폭간소화하고 모든 計量·計測器機의정밀도향상을 위해 工振廳안에 ...

全대통령은 이어 이날하오 李宣基동자부장관과 관계국장 4명으로부터 소관업무계획을 보고받고 『石油備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에너지 需給上의 국제적 변동요인에 수시 대응할수 있는 대책을 미리미리 강구토록하라』고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에너지10% 절약의 목표를 조속히 달성할수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하고 『脫石油정책 시행도 가능한 분야를찾아 한해라도 앞당겨 시행토록하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石油化學등 統合추진
商工部보고 造船·電子육성 輸出산업으로

全斗煥 대통령은 3일 상오 靑瓦臺에서 徐錫俊상공부장관, 金炯培공업진흥청장과 상공부의 담당국장으로부터 올해 상공부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徐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올해 상공시책의 기본방향을 ①수출의 지속적인증대와 내실화 ②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합리화 ③산업의 경쟁력강화 ④중소기업의육성 발전 ⑤서민생활의 안정지원등에 두고 각종시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하고 특별보고를 통해 88년 서울올림픽에 대비, 유망신규상품을 개발하여 수출상품화 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金工振廳長은 품질관리의토착화, 한국공업규격의 국제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보고했다.

상공부는 수출의 지속적인 증대와 내실을 기하기 위해 중공업과 부품공업을 수출산업화하여 중공업수출을 1백5억달러 (전년대비 28.9%증가) 부품수출을 20억달러 (60%증가)로 확대하고 경공업의 기술고도화와 품질고급화를 통해 올해 수출목표 2백45억~2백50억달러를 달성키로했다. 특히 적자수출을 막기위해 사전조정과 수출질서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했다.

이와 아울러 경쟁여건을 국제화하여 환율의 실세화, 수출금융의 금리인하및 융자단가의 인상과 절차간소화가 적극추진될 계획이다.

주요 산업부문의 시설능력은 별표와같다.

◇産業部門別 시설능력

部門	單位	81	82	備考
鐵鋼金屬				自給度
製鋼施設(粗鋼基準)	千屯	12,400	12,800	88
銅	〃	140	140	94
亞鉛	〃	95	95	100
鉛	〃	9	9	20
알루미늄	〃	18	18	16
石油化學系列製品	千屯	1,048	1,233	75
一般機械				國産化率
工作機械	千臺	45	45	NC旋盤 75
農業機械	〃	450	450	耕耘機 99
纖維機械	〃	23	23	自動絹織機 85
建設重裝備	〃	5	5	불도저 70
自動車	千臺	350	337	포니 93
造船	千G/T	4,000	4,000	輸出船 50 / 計劃造船 75
電子電機				國産化率
半導體	千枚	462	660	25
컴퓨터	臺	1,046	1,260	40
電子交換機	千回線	430	600	62
컬러TV	千臺	2,000	2,400	90
音響機器	〃	27,700	30,500	80
VTR	〃	18	60	45
電動機	千HP	6,500	6,500	85
變壓器	MVA	25,100	25,100	80
纖維				世界位置
化纖	日産屯	1,439	1,506	6位
紡績	千錘	4,335	4,411	9位
신발	百萬足/年	306	310	8位
타이어	千本/年	15,180	16,840	13位

또 88서울올림픽 준비사업을 위해 올림픽유망상품을 선정、6월까지 수출상품화하기로 했다.

産業정책면에서는 업종별、품목별 합리화계획과 장기육성계획을 금년중에 확정、산업정책의 기본지침으로하여 기계、조선、전자등 경쟁력 있는 산업을 중점육성하고 石油化學、肥料、防産등 여건이 어려운산업에대해서는 해당기업의 통폐합등 적절한합리화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부품공업과 소재공업을 육성、자급도향상에 주력함으로써 완제품 조립산업중심에서 오는 수입유발적효과를 막고 국제수지를 방어하며 기계및 전자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중점육성하여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고도화해나가기로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10개년계획을마련、장기적 안목에서 육성시책을펴나가고 계열화、협동사업을 확대해나가기로했다.

「팀스피리트82」 15만參加
"한국突發사태對備 防禦훈련"
13일부터、戰略전개·수용·복귀 3단계 훈련

韓美聯合司 발표

한미양국군이 오는 13일부터 4월26일까지 실시할 「팀스피리트82」 훈련에는 15만7천5백명의 병력이 참가하고 어느해보다 많은 최신예 장비가 동원될 것이라고 한미연합사령부가 3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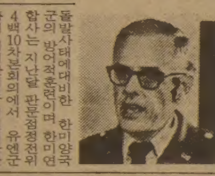
한미연합사대변인 리처드·G·하이드대령은 이날 「팀스피리트82」 훈련의 개요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병력의 규모는 한국주둔 미2사단과 공수부대되는 다른 1개육군사단사령부및 여단규모병력, 오끼나와주둔 제9해병상륙여단등 상륙기동부대, 7함대소속 1개항모전단및 태평양지역과 미본토에서 증원되는 공군부대, 그밖에 미공수사령부소속 항공기등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드대령은 훈련참가병력 15만7천5백명중 한국군이 10만, 미군이 5만7천5백명이 될것이며 이들은 총 6개사단규모로 3개사단씩 나뉘어 가상전투훈련을 실시할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드 대령은 「이번 훈련에는 지난해(16만1천8백명)보다 약간적지만 동원되는 장비는 최대규모가 될것」이라고 말하고 「훈련경비는 미국측의것만 5천만달러가 될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훈련은 ①전략전개 ②수용 ③전략복귀의 3단계로 나뉘어 실시 될 예정인데 3월말께부터 4월초에 걸친 약8일간의 야외기동훈련으로 절정을 맞게될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드대령은 이 훈련이실시되는 지역을정확히 밝힐수는없지만 서울북방이나 휴전선부근에서는 실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훈련의목적은 한국내에서 가상되는 돌발사태에대비한 한미양국군의 방어적훈련이며 한미연합사는 지난달 판문점정전위 4백10차본회의에서 유엔군측이 제의한대로 정전위공산측대표단이 이 훈련을 참관하게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팀스피리트82훈련을 설명하는 한미연합사 하이드 대변인.

海上지휘관 會議

금년도 해상지휘관회의가 3일 李鍾奕 해군참모총장을 비롯, 각급지휘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950부대 연수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급 지휘관들은 북괴의 어떠한 해상도발과 책동도 즉각응징하기위해 대간첩태세 조기완비, 최고도의 전투태세 확립과 완벽한 군수지원으로 해상수호에 만전을기할것을 다짐했다.

이번 회의는 4일까지 계속된다.

이날 회의에서 표창받은 함정과 부대는 다음과같다.

▲전비우수함=대전함 대구함, 수영함 충남함 월미함 백구52 하동함 구미함▲안전우수함=대전함 수영함 백구56 운봉함 옥천함 청룡함▲보안태세 우수함=충북함▲지휘검열우수부대=5738부대▲보안태세 우수부대=1691부대▲우수포술상=여해정 충무함 10함

전직長·次官 迎入 民正
朴鳳煥·金滿堤씨등 政策연구소擴大 개편

民正黨은 朴鳳煥 前동자부장관 金滿堤前한국개발연구원장 李應善前과학기술처차관 金榮作국민대교수등 전직長次官과 대학교수등을 黨의 책임연구위원으로 영입, 정책연구소기구를 확대개편했다.

民正黨은 3일 중앙집행위원회 소속의 정책연구소를 黨附設정책연구소로 개편하여 黨기구만이 아니라 정부산하 비롯, 法人, 學界및 개인연구기관과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며 협조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유능한 인사들을 책임연구위원으로 다수영입, 中長期정책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民正黨은 이같은 정책개발 방침에 따라 종전5개분야로 구분됐던 정책연구소를 8개 연구실로 개편했으며 實物경제에 밝은 인사와 전문경영인 출신도 참여시켜 책임연구원을 종전60명에서 8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새로 개편된 정책연구소의 8개연구실장은 다음과같다.

▲黨理念제1(民族統一담당)=金榮作(국민대교수) ▲黨理念제2(民主 正義담당)=裵成東의원(전국구) ▲黨理念제3(福祉담당)=李祥羲의원(〃) ▲經濟제1(경제정책금융담당)=金鍾仁의원(〃) ▲經濟제2(산업과학기술담당)=의원(〃) ▲福祉社會=(前科技處차관) ▲教育文化=鄭熙彩의원(전국구) ▲安保外交=鄭元民의원(〃)

波自由勞組 抵抗委결성

【런던3日UPI=聯合】 폴란드의 자유노조는 전국적인 비밀저항활동을 조성하기위해 「전국저항위원회」를 결성했다고 런던의 데일리·텔리그래프지가 3일 보도했다.

公館長7명 交流異動

이슬라마바드總領事 吳在熙
레바논大使 文昌華·안티구와大使 李福衡·西베를린總領事 金奉奎씨
파푸아뉴기니大使 尹處遠씨

◇吳在熙총영사

◇文昌華대사

◇尹處遠대사

◇金奉奎총영사

정부는 3일 吳在熙駐美公使를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總領事로, 文昌華외무부外信文書局長을 駐레바논大使로 임명하는등 해외공관장급 7명에 대한 교류인사를 2일자로 단행했다.

李福衡駐이슬라마바드總領事는 駐안티구와大使로, 金奉奎駐암스테르담총영사는 駐西베를린총영사로, 尹處遠駐西베를린총영사는 파푸아뉴기니 대사로 전보발령됐다.

이번 인사에서 李福衡駐도미니카대사는 駐안티구와·바뷰다대사의 겸임발령을 받았다.

새공관장들의 약력은 다음과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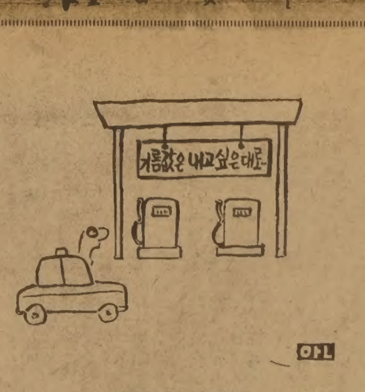
◇吳在熙駐이슬라마바드總領事=慶北大邱출신·49세▲서울大文理大卒▲邦交局국제기구과장▲駐英·駐노르웨이참사관▲정보문화국장, 亞洲국장▲駐日·駐美공사

◇尹處遠駐파푸아뉴기니大使=▲慶南 巨濟출신·49세▲延大卒▲駐英事務官▲歐洲局심의관, 기획관리실 정책조정관

◇文昌華駐레바논大使=▲釜山출신·46세▲延大卒▲駐페루참사관·駐美참사관▲외신문서국장

◇金奉奎駐西베를린總領事=▲慶北大邱출신·46세▲慶北大卒▲통상국통상1과장▲駐영사교민국여권심사관▲駐암스테르담총영사

社會漫評



기름값 自由化

地平線

立春大吉, 開門萬福 ― 오늘은 대문기둥에 春聯을 붙이는 立春이다. 冬至가 지나면서 하루에 노루꼬리만큼씩 길어지던 낮 길이가 어느덧 한시간이나 달라졌다. ▼농가에서는 보리의 뿌리를 파보아 1년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날이기도하다. 늦가을에 심은 보리 뿌리가 세갈래이상 내려있으면 풍년, 두갈래면 평년, 한갈래면 흉년징조라고한다. 올해는 한겨울에 이상난동이겹쳐 풍흉을 한마디로잘라말하기는 어려우나 날씨가 이상태로만 가면 보리풍년은 틀림없을 모양이다. 관북지방에서는 이날 나무로만든 소를 끌고 다닌다. 흙으로 만든소를 모방한것인데 出土牛 以送寒氣라고 추위를 쫓고 풍년을 기도하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羅鄴의 「春」이란 詩엔 「一二三四五六七 萬木生芽 是今日」이라고 立春을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한데 숫자를 헤는 방법이 한국사람과 중국사람은 전혀다르다. 한국사람은 먼저 손바닥을 펴고 손가락을 하나 둘씩 꼬부리며 셈을 한다. 중국사람은 그와 반대로 다섯손가락을 꼬부리고 그다음에 엄지손가락부터 펴면서 一、둘째손가락을 또 펴면서 二라고 센다. 한국사람것은 일본사람방식과도 같은데 우리들 조상은 중국식이었을지 모른다. 중국말로 一(발음은 이)은 손바닥에 손가락을 잡혹꼬부렸다가 그 閉鎖를 풀고 나오는 소리다. 이렇듯 숫자헤는것에서도 겨울을풀고 터져나오는 봄을 얼마나기다렸는가를 짐작하고 남게한다. ▼春은 蠢하고도 통한다. 벌레가 陽氣에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하나 年年歲歲花相似、歲歲年年人不同 ― 해마다 봄에 피는 꽃은 같은 모양이지만 그꽃을 바라보는 사람은 같지를 않다. 늙은 것이 숙명인 사람들에겐 해마다 찾아오는 立春이 한결 다른 의미를 갖게마련이다. 옛날엔 봄맞이를위해 동녘에 푸른옷을 입고나가 제사를 지냈다는 말도있다. 부드러운 봄바람은 남녘이나 동쪽에서 불어온다. 따뜻한 봄바람이 北風을 몰아내기는 아직 이르지만 立春이되면 大陸性高氣壓의 힘이 저절로 빠지고 봄햇빛이 어느새 다가와있는 것이다 ▼올해들어 夜間通禁해제、65세이상 老人無料승차、13세미만어린이 공공시설 입장 무료등 부드러운 봄바람이 불고있다. 다만 쌀값下落、농촌부채 과중으로 농민들에겐 봄입김이 아직 안닿는가보다. 外米를 무더대고 많이 사와 變質米까지 생겨 일부는 酒精用으로 몰리는 판이니 쌀값이 제값을 받을수 없음은 물론이다. 立春을 가장 기다리던 농민들에게 따스한 햇볕이미치도록 농촌 실정에 눈을 더 떠야되겠다.

한국일보
우리의 理想은 健全한 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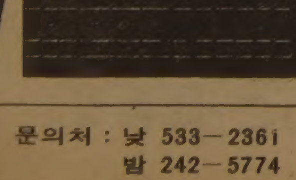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 R. S. P
922-3111(B)
791-8196(R)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WORLD BOOK —
CHILDCRAFT OF CANADA

아직도 WORLD BOOK을 구입 못하셨읍니까? WORLD BOOK은 북미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있는백과사전의 하나이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과정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29,000이상의 사진, 그림, 지도및 차트포함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문의처 : 낮 533-2361
밤 242-5774

아직도 작년값으로 팝니다

밍크
털오바를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털 오바◆

새 진열장을 갖추고 고객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털코트, 자켓, 모자, 스톨, 털목도리등
BIG SAVINGS NOW!
신 품 : $99이상 중고품 : $10이상

영업시간
9:30~6:00 월, 화, 수, 토
9:30~9:00 목, 금
202 SPADINA AVE.
☎ : 363-6077 MRS. PARK

海記飯店
HOI KEE REST.

— 싱싱하고 맛있는 —
달팽이 요리, 게 요리,
가재 요리, 조개 요리

한국인의 입맛에 꼭 맞는 진미 중국요리
가게가 끝나신후 꼭 들려 주세요
새벽6시까지 영업합니다

영 업 일 : 월요일~일요일
영업시간 : 오전11시반~새벽6시까지

※ 이 광고를 갖고오십시오.
10% 할인

133 DUNDAS ST. W
TEL. 977-3441
海 記 飯 店

종합보험

김 흥 량

● 생명보험
● 자동차보험
● 주택, 상점보험
● 사업보험
● R. R. S. P.
● INCOME AVERAGING ANNUITY
● PENSION

FINANCIAL & INSURANCE CONSULTANT
482-0166(B)
624-2103(R)
IMPERIAL LIFE

The Imperial Life Assurance Company of Canada
Suite507, 586 Eglinton Av. E.
Tor. Ont. M4P 1P2

● CAPITAL GAIN, 높은 소득으로 인한 높은 세금의 조절및 경감방안
● 기업계승에 따른 문제처리
● 생활안정금고

美·이집트 頂上회담

사다트死後 처음 中東평화案등 집중토의

對埃經援 중요議題로

무바라크, 이스라엘水準 요구할듯

【워싱턴3日UPI聯合=特約】 미국, 영국, 프랑스등서방6개국 순방에 나선 호스니·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은 3일자정 (한국시간)레이건 대통령을 만나 사다트死後 첫 美埃 정상회담을 갖는다.

무바라크 대통령은 이회담에서 中東평화방안과 미국과 이집트간의 경제및 군사협력 강화 방안을 중점토의할것으로 보인다.

이집트관변소식통은 무바라크 대통령은 故사다트대통령이 추구한 중동평화노선의 계속추구를 미국에 다짐할것이라고 전했다.

무바라크·레이건 회담에서는 중동평화문제외에도 악화일로에 있는 이집트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미국의 對이집트경제원조가 중요한 의제로 등장할것으로보인다.

무바라크는 현재 미국의 對이스라엘 경제및 군사원조액의 절반에 불과한 미국의 對이집트 경제및 군사원조액수를 이스라엘과 동등한 수준으로 올려줄것을 요구할것으로 알려졌다.

이집트는 미국으로부터 9억달러에 달하는 경제및 군사원조를 받고있으나 이스라엘은 15억달러를 받고있다.

이집트는 연20%이상의 악성인플레와 매년 20억달러이상을 곡물수입에 충당하는등 심각한경제난에 직면해있다.

무바라크는 지난79년 카터前대통령이 약속한대로 미국의 이스라엘과 이집트에대한 원조규모가 같아야한다는 점을 강조한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이집트신문들은 무바라크발언임에 틀림없는 「권위있는 성명」으로 자세히 게재했다.

이성명은 「이집트는 지금까지 중동평화를 위해 충분한 위험을 감내해 왔으므로 이스라엘은 이제 요르단강서안지역과 가자지구를 포기해야만한다」고주장하고있다.

◇워싱턴서 만난 무바라크·헤이그

알렉산더·헤이그 美국무장관이 2일 호스니·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과 함께 앤드루 공군기지로부터 워싱턴에 도착, 무바라크 대통령을 안내하며 걸어나오고있다. 【워싱턴3日UPI特約=聯合】

사우디·佛 軍協체결

미라지機 購入·軍需공장 건설등

兩國국방상 會談서

【리야드2日AP=聯合】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는 2일군수산업협력, 프랑스製미라지機의 對사우디판매및 사우디 군사요원훈련등을 골자로하는 군사협력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군사협력협상차 사우디를 방문중인 샤를르·에르뉘 프랑스국방상과 이븐·아지즈사우디 국방상은 이날 양국국방상회담을 마친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그와같이 발표했다.

양국국방상은 이날 체결된 군사협력 협정에 대해 더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사우디 정부소식통들은 이 협정에 사우디해군시설확장지원과 사우디와 페르시아灣맹방들에 의한 10억달러규모의 군수공장건설지원도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사우디 관영통신은 에르뉘 국방상과의 회담에서 사우디가우호관계를 맺고있는 선진공업국들로부터 현대군사장비를 도입할 방침이며 특히 사우디의 해안선방위를위해 프랑스무기를 도입할계획임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바레인2日聯合】 프랑스는 이스라엘·이집트간의 캠프데이비드협정이 종말에 이른것으로 믿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안한 8개항의 中東평화안을 지지한다고 샤를르·에르뉘 프랑스 국방상이 2일 말했다.

海底자원獨占개발 합의

美·英·佛·獨 비밀협정

하와이·北美해역 對象

【東京3日=聯合】 미국, 영국, 서독, 프랑스등 서방4개국정부는 지난19일 태평양등의 深海底광물자원의 독점개발을 위한 비밀협정에 조인, 곧 발효시킬 예정인 것으로 3일 밝혀졌다.

이들 4개국의 이같은 비밀협정은 해저에 잠자고있는 육상자원의 40배에 달하는 망간, 코발트, 니켈등의 전략광물자원에 대해 海底鑛區를 설정, 조기개발을 하려는 것으로 최근 이러한 사실을 일본 정부에 통고해옴으로써 밝혀졌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일본등 다른나라를빼고 4개국만이 개발에 착수하려는 심해저광물자원은 주로 태평양, 특히 하와이제도와 북미대륙사이에 널리퍼져있는 망간團塊로서 이에는 전기원자로등에 사용되는 코발트·니켈·銅을 비롯한 십여종의 귀금속이 포함되어있어 개발이 진행되면 코발트소비량의 전량을 해저자원으로 확보할수있을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4개국간의 협정내용은 ▲협정발효와 동시에 4개국의 사업부처는 탐사광구를 각국정부에 신청하고 ▲취득광구의 넓이는 제한을 설정하지않고 ▲신규가입자는 국내관련법을 정비한 나라에 限하되 빨라도 내년1월24일까지는 신청을 받지않는다는것으로 돼있어 극히 배타적인것으로 알려졌다.

메아리

漢江의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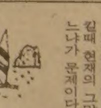
漢江의 모습이 바뀐다. 늦어도 올림픽때까지 漢江은 폭7백m의 水路로바뀌고 그양편 기슭에는 고속화도로가 뻗으며 울창한 녹지대와 공원이생기는외에 곳곳에 체육경기장과 아담한주택들도 들어서게된다. 漢江가운데는 4천5백톤급의 바지선까지 오르내리게 될 예정이다. 그무렵이면 漢江에는 더짙은 남만이 또한 흐르게 되겠다.

건설부는 86및 88년의 두 五輪행사에 대비하여 워커힐부터 蘭芝島에이르는 30㎞구간의 漢江을 정비, 江가운데 低水路를 만들어 한시 물이 흐르게하고 양옆강변에 폭 1백m의 高水敷地를 12군데 만들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이 고수부지에 조성된 1백만평의 땅은 河川公園이나 운동장으로 활용하고 城山大橋와 잠실, 그리고 워커힐에 이르는 남쪽강변 26㎞에는 4차선의 고속화도로를 건설하게 된다고 한다. 투입될 예산은 1천2백억원 정도.

여의도 남쪽의 샛강을 메워 30만평의 땅을 만든후 그중 10만평을 택지로 매각하고 또 하천준비때 파내는 골재를 팔아서 그 돈으로 이 공사비를 충당할 계산이라고 건설부는 말하였다. 배가 다니게되면 麻浦는 옛날의 浦口로돌아가는 셈이나 汝矣島는 강변과 잇닿게되어 「島」자를 떼어야하지는 않을는지—.

흐름을 조절하고 강유역을 정비한다는 사업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닌것같다. 건설부도 금년중 水利실험등을 거치면서 河川工學的 측면에서의 검토를 면밀히 한 계획이라고한다. 우선 종합적인 관점에서 한강의 개발計劃이 수립되어야하고 그에따라 축제, 준설, 개척이 행해지며 홍수방지, 용료수확보, 舟運들이 도모되어야한 것이다.

利水면만 하더라도 막상 漢江에 배를 운항시킬때 현재의 그많은 다리의 교각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이다. 지금까지 漢江에 교량을 신설하면서 장차 漢江에도 배가 다니게 될것을 생각하고 교각을 세운것이 몇군데나 될지 의심스럽다. 그나마 70년대말엽에 와서야 「예쁜다리」를 놓아야한다고 建築美를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漢江처럼 폭이 근 1㎞나 되는데서는 교량의 主徑間이 예컨대 1백50m정도 벌어져도 된다고하는데 우리네 漢江다리는 교각을 촘촘히 세운것이 대부분이다. 어떤배가 어떻게 다닐수 있을는지 선뜻 생각이 나지 않는다.

아름답고 푸르고 짜임새 있게 가꾸어진 江邊, 깨끗한 물이 출렁거리며 흐를 江心, 그위에 배가 미끄러지는 漢江—한폭의 그림이다. 차질없이 實現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꼭 낭만에 흘려서만은 아닐것이다.

부시被擊 소동

犯人은 시멘트조각…한때 搜索법석

"종류未詳"물체날아와 警護員 銃彈으로오인

【워싱턴3日AP UPI=聯合】 2일상오7시25분(한국시간 하오9시25분) 쯤 조지·부시 美부통령이탄 방탄 리무진에 종류를 알수없는 물체가날아들어 승용차지붕한쪽이 움푹 파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백악관으로부터 8구간 떨어진 지점에서 날아든 괴물체는 당초 인근건물에서 발사된 총탄으로 오인되어 경호원은 물론 워싱턴특별구 경찰이 초긴장했으나 조사결과 시멘트벽돌조각으로 판명되었다.

연방수사국(FBI)과경찰·경호원합동조사반은 이날 발생한 사고가 「고의적공격에 의한것이 아니라」는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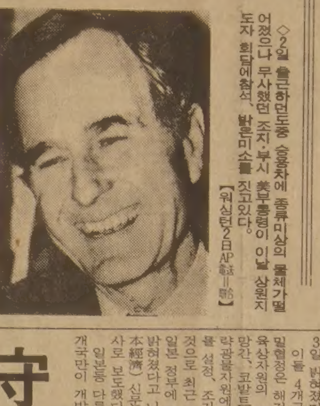
비밀경호실의 특수요원인 제임즈·보일씨는 FBI실험실에서 행한 감식결과 부시부통령의 승용차에 날아든물체는 『사고현장인근공사장에서 쓰이는 건축자재와 일치하는 물질』인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부시부통령의 대변인인 피터·틸리씨는 FBI의 감식과정에서 아무런 금속파편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하고대신 『진흙과 시멘트가 배합된 물질』이 나타났다고전했다.

그러나 부시부통령의 출근길에벌어진 이사건은 지난해 레이건 대통령의 피격과 리비아 암살단의 잠입설등으로 요인저격공포증에 젖어있던 워싱턴시가를 초비상상태로 몰아넣는 촌극을 벌였다.

경찰과 FBI는 때마침출근길로 붐빈 사고지역에 대거출동, 헬리콥터가 상공을 맴도는가운데 총알에서 떨어져 나옴직한 금속파편을 찾기 위해 온거리를 훑는수색작전을 펼쳤다. 이들은 저격범이 총을쏜것으로 추정한부근 건물도샅샅이뒤졌다.

고위관리의 생명을노린 계획적인 저격사건일 것이라는데 촛점을 맞추고 벌인 소동은 이렇게 싱겁게 끝을 맺었다.



◇2일 출근하던도중 승용차에 종류미상의 물체가떨어졌으나 무사했던 조지·부시 美부통령이 이날 상원지도자 회담에참석, 밝은미소를 짓고있다. 【워싱턴2日AP特約=聯合】

엘살바도르

守備隊長등 百여死亡

左翼게릴라 國境근처 2개市 기습

【산살바도르2日聯合】 엘살바도르좌익게릴라 수백명이 2일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국경근처의 누에바·트리니다드市를 기습, 장악하는 과정에서 약1백명이 사망했다고 엘살바도르의 정통한 군부소식통이 말했다.

이소식통들은 약 5백명의 게릴라들이 산살바도르 북동쪽 1백20㎞에위치한 누에바·트리니다드市를 공격, 수비대장을 포함한 군인12명이 사망했다고 말했으나 그이상 자세한것은 밝히지 않았다.

이같은 사망자수는 수주만에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엘살바도르를 통치하고 있는 軍民혁명위원회를 전복하기 위한 게릴라전투가 최근 급격히 증가한데 뒤따른 것이다.

西獨서 긴장사태 발생땐

美軍10만派遣 검토

【함부르크2日UPI=聯合】 미국은 西獨에서 「긴장이 발생할 경우」 10만명이상의 미군6개사단병력을 추가, 파견하는 문제를 西獨측과 조정중이라고 한스·아펠 서독국방상이 2일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아펠국방상은 이날 서독주간 … 과의 인터뷰에서 美·西獨간에 체결될 한 협정에 따라 서독은 추가배치될 미군의 유지비로 83년부터 2천5백만달러를 제공하게될것이라고 말했다.

美 情報요원들 民間企業 가장

NYT보도

【워싱턴3日UPI=聯合】 미정보요원들은 지난 79년 11월 테헤란주재 미대사관피습당시 다량의 극비문서가 몰수된데 자극받아 최근 외교공관원대신 민간기업체직원을 가장하여 해외활동에 임하는사례가 늘고있다고 뉴욕 타임즈지가 2일 보도했다.

波紋몰고온 「이스라엘 秘密工作」…2題

이란에 武器密賣

英BBC-TV報道

아르헨機전세…空輸 蘇領內 의문의추락

事件전모 드러나 이스라엘은 발뺌

【런던2日AP特約=聯合】 이스라엘은 이란군부내의 친서방세력을 지원키 위해 지난해부터 이란에 비밀리에 무기공급을 시작했으나 무기수송중이던 한 항공기가 소련영토에 추락함으로써 이 계획이 분쇄됐다고 영국 BBC·TV가 1일밤 보도했다.

BBC·TV는 이날 파노라마프로그램에서작년7월18일 소련·터키국경서 일어난 아르헨티나수송기의 추락사고를 보도함으로써 이스라엘과 이란간의비밀무기거래가 폭로됐다고 주장했다.

「미완성의 거래」란는제목의 이 프로에서 필립·티번햄기자는 이무기공수가 이란미국인인질사건에 대한 서방제재에 개의치않고 이뤄졌다고 말했다.

티번햄기자는 또 이 추락사고가난후 이스라엘은 텔아비브에서 키프로스의 라르나카를 경유, 테헤란으로 이어지는 무기공수항로를 포기해야만했다고 덧붙였다. 티번햄기자는 자세한 내용은 덮어둔채 이스라엘이 그후엔 自國의 아쉬도드항에서 적재되는 컨테이너를 이용해 이란으로 무기를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이 무기를 공급하게된 동기는 현재 81세의 고령인 호메이니옹도사후에 닥칠지모를 혼란에서 소련을 견제하고 이란내 친서방정권을 유지하기위한 사전포석이었다고 BBC는 전했다.

문제의 CL44 터보프로펠러機는 길을 잃은것인지 또는 의도적인것인지는 몰라도 테헤란서 라르나카로 귀환중 의문의 추락사고를 당했다. 사고발생후 영국과 키프로스의 보도들은 이 비행기가 이스라엘서 이란으로 무기를 수송중이었다고 밝혔다.

파노라마프로도 역시 수송기가 매카페티의 계획에 따라 그주에 세번째의 무기공수임무를 마치고 귀환중이었다고 밝혔다.

영국 선데이·타임즈紙는 지난7월 무기공수에 고용된 스튜어트·매카페티라는 38세의 스코틀랜드인이 3명의 아르헨티나 승무원과함께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티번햄기자는 라르나카를 경유하는 항로는 한 이스라엘고위관리가 고안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전에는 이란정부를위해 활동하는 아메드·헤이다리라는기업인 소유의 파리에있는 「세티」라는 회사가 거래를 맡았던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에 출연한 헤이다리는 2억달러상당의 무기를 구입해달라는 지시를 이란국방성으로부터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매카페티는 아르헨티나機를 리스본에서 세낸것으로 전해졌는데 지난 7월11일 첫번째 임무에서 이란이 보유한 美製팬텀기에 필요한 타이어를 실어 날랐으며 이어 이스라엘製무반동소총등을 수송했다는 것이다.

이란은 추락사고가 나자 이 항공기의 무기공급사실을 공식부인했고 이스라엘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인사이드

對西方 諜報활동

美紙、CIA보고서 연재

유럽·美등 손뻗쳐 협박·금품등 요구

「人質사건」때 이란서빼내

미중앙정보국(CIA)의 이스라엘을 포함한 「對中東작전」에 관한 극비사항이 속속들이 드러나고있다. 이CIA의 극비사항은 이란과격파학생들이 테헤란주재 미대사관을 점거했을당시 입수한 각종기밀문서를 토대로한것으로 신빙성에있어 거의완벽하다.

미법무성은 폭로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있는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즈, 보스턴·글로브紙등에 미묘한 반응을 보이고있다.

기사내용은 바니 사드르 전이란 대통령에대한 CIA.포섭공작, 가장 정확한정보기관으로 정평이난 이스라엘정보기구의 내막등이다. 워싱턴·포스트는 1월31일자부터 이기사를 연재하고있다. 2회째인 1일자 지면은 특히 이스라엘의 스파이활동에 관한 CIA의 보고내용을실었다.

이보고서는 79년3월 작성한것으로 전문47페이지. 이스라엘이 아랍과 유럽제국은 물론 맹방인 미국에도 손을 뻗쳐 정부기관의 공무원에대한 협박 금품제공 도청기설치등 적극적으로 스파이활동을 펴왔음이나타나있다.

한예로 이스라엘의 대적정보기관인 신베드(Shin Beth)는 이스라엘주재미총영사관의 미국인 직원이 이스라엘여성과 교제하고있다는 사실을 파악, 이스라엘여자에게 임신중절케했다고 대사관직원을 협박해 정보를 얻어냈다는것이다. 또 54년엔 텔아비브 미대사관의 대사집무실과 56년엔 미대사관무관집에 각각 도청기를 설치했다는것이다. 이밖에도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정보수집을 위해 외교기관의 경비를 맡고있는 미해병대의 사병들에게까지 돈을뿌렸다한다.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은 바아다트(Vaadat) 소속이다. 바아다트는 대외공작을 책임지는모사드(Mossad)와 역정보활동과국내안보를 담당하는 신베드로 구분되며 모두 수상에 직속되어있다.

이란과격파학생들은 미대사관에서 빼앗은 방대한양의 각종기밀문서를 토대로 CIA의 대중동작전내용을 13권의 책으로출간, 배포했다. 【워싱턴=特約】

◇刑量을 동전 던지기로 결정…

소매치기혐의로 구속된 18세 소년의 형량을 동전 던지기로 결정하여 물의와 비난의 표적이된 문제의 앨런·프레이스 판사가 뉴욕의 개인사무실에 앉아있는 모습. 그는 동전 앞뒷면에 30일과 20일을 적어 소년에게 건네주고 던지게한후 뒷면이 나오자 20일의 형량을 선고했다. 【뉴욕2日AP特約=聯合】

外信안테나

◆와인버거, 中東3國巡訪=캐스퍼·와인버거美국방장관이 4일 워싱턴을 출발, 사우디아라비아·오만·요르단등을 9일간 순방할 것이라고 美국방성이 2일 발표했다. 【워싱턴=AP】

◆북괴 李鍾玉 아세안4國巡訪=북괴 정무원총리 李鍾玉은 2일 그의 東南亞순방 첫 방문국인 타이로 가던중 랭군에 기착했다. 李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싱가포르및 타이등 東南亞국가연합(아세안) 4개국을 순방중이다. 【랭군=AFP】

◆美空軍, 空對空미사일紛失=西獨주둔 美空軍소속 F15전투기가 지난1일 西獨남서부국경지역의 슈바르츠발트 상공에서 훈련도중 폭탄이 실제로 장전된 사이드와인더 空對空미사일을 실수로 떨어뜨려 분실했다고 美공군대변인이 2일 밝혔다. 이 대변인은 분실된 미사일이 사이드와인더로 알려진 재래식非核 9L型으로 4㎏의 TNT가 장전되어있으며 F16機가 1일상오 방공훈련도중 西獨 남서부 국경지역라르지방의 캐나다 공군기지 동쪽으로 40㎞떨어진 지점의 상공에서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람슈타인(西獨)=UPI】

◆도지어將軍 구출후첫會見=이탈리아도시게릴라단체 붉은여단에 피납됐다가 구출된 제임즈·도지어 美육군준장은 2일 자신이 이탈리아당국의 경고를 무시, 붉은여단의 납치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안상의 조치를 취하지못했다고 말했다. 【비첸차(이탈리아)=AP】

文化短信

2·8獨立선언63돌

2·8독립선언 제63회기념식이 8일하오2시 YMCA대강당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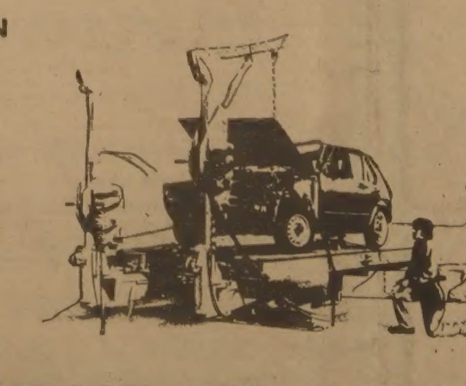
이날 기념식에서는 白善基씨의 2·8독립선언거사실상설명과 崔承萬선생의 2·8선언회고가 있고 2·8선언에 참가한 崔承萬·羅容均선생에게 기념품을 증정한다.

古建築 사진전

사진작가 金仁洙씨와 洪承憙씨가 2월한달동안 그랜드베어화랑에서 古建築 사진전을 갖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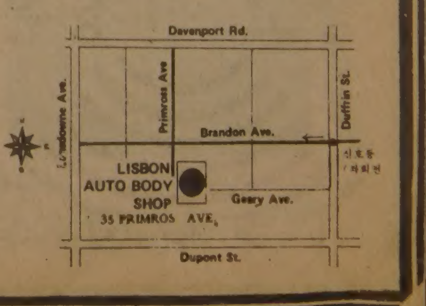
신년특별봉사

*A. CLASS LICENCE BODY MAN
*A. CLASS LICENCE PAINTER
*GUARANTEE WORKMAN SHIP
*사고후 보험처리
*OVEN BAKED FINISH
*COMPLETE BODY WORK
*TOWING써비스
*수리중 차대여



●교민 여러분께 개업특별 써비스
●유능한기술과 철저한 신용으로 봉사
●수리후 문제점에 대한 책임보증

이 영 두 이 건 학



LISBON Auto Collision Inc.

주소 : 35 PRIMROSE AVE. TORONTO M6H 3V1
전화 : 533—8507, 533—8508(B), 439—6548, 266—8925(R)

LISBON AUTO COLLISION INC.

추위속에 목이탄다

嶺湖南·영동 일부 「겨울가뭄」극심

江陵지역 降水量 예년의 25%
곳곳서 食水難 제한給水 소동

추위속에 목이탄다。부산·大邱·光州·木浦·江陵·東草·太白등 영·호남지역과 영동지방 일부도시에서는 올 겨울들어 눈·비가 적어 계속된 겨울가뭄으로 심한 식수난을 겪고있다。제한급수가 장기간 실시되자 가정과 사무실에서는 보일러마저 제대로 가동할 수가 없어 겨울가뭄에 난방소동까지겹쳐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특히 太白등 탄전지대에서는 메마른 저탄장의 탄가루가 바람에 마구 흩날려 공해마저 극심한데도 물이 없어 세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부산의 경우 올겨울들어 비나눈이 거의 내리지 않는 바람에 수원이 크게 모자라는데다 부산勿禁취수장의경우 洛東江수량이 줄면서 바닷물이 역류, 염분상승 현상마저 일어나 취수를 제대로 못해 2일부터 부산시내전역에 제한급수를 실시하고있는 실정이다。

太白등 탄전지대 水源池바닥
보일러 稼動못해 冷房소동도

3일 부산시당국자는 이날 취수장의 염분상승은 계속된 가뭄으로 낙동강의 수위가 낮아진데다 조수간만의 차가심한 탓으로 심해졌다고밝히고 오는10일까지 고지대 일대에는 격일제로, 나머지지역에 대해서는 하루6~8시간씩 제한급수할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는 이에앞서 산업기지개발공사와 협의, 南江댐에서 초당 30톤, 安東댐에서 초당 50톤의 물을 방류토록 비상대책을 세웠으나 강물이 얼어 댐의 방류수가 勿禁취수장까지 도착하는 시일이 늦어져 간만의차가 가장심한 오는10일까지 제한급수키로 한것이다。

겨울가뭄으로 인한 제한급수를 실시하고있는곳은 이밖에도 大邱등 영남지방、光州·木浦등전남일부도시와 전북의 裡里등지로 비슷한 실정이다。

또 太白탄전지대에는 지난해 9월이후 5개월째 가뭄이 계속돼 심한 식수난을 겪고있다。

太白탄전지대는 올 겨울에 단 1㎝의 눈도 내리지 않아 수원지가 바닥이 난것。

太白市의 상수도 시설용량은 黃池수원지·穴里수원지·鋼禾田수원지·長省수원지·鐵店수원지·鐵岩수원지등 6개수원지에서 총 1만3천6백톤규모이나 현재는 하루2천톤을 급수하기가 어려운실정이다。

旌善郡舍北邑의 경우는 하루 4천여톤의 급수용량에서 최근에는 1천여톤밖에 공급이안돼 탄전지대의 소방차들이 매일같이 10여차례씩 식수를 공급하고있다。

舍北邑 古汗里를비롯한 도로변과 太白市禾田洞 저탄장일대에는 너무나건조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탄가루가 날라 주변이 시커멓게되기가 일쑤이다。

이에따라 東原탄좌를 비롯한 각 광업소에서는 난방용 스팀을 하루 한시간 정도밖에 가동하지못하고있으며 세탁물이 쌓여가는등 주민들의 불편이 심각하다。

太白市와 旌善郡의 경우는 太白탄전지대가 서쪽안지대이기때문에 근본적인 대안이 없는한 이같은 식수난은 연례행사처럼 치러야할 딱한입장에 있다。

주부 金모씨(29·太白市黃池1洞)는『밥지어 먹을 물마저 얻기가 힘들어 요즘의 불편은 말이 아니다』면서 식수난이 하루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일부지역聯合綜合】

중앙기상대에 의하면 올겨울 가뭄은 눈이덜이내린 서울과 京仁지역을 제외한 전국적인 현상이라는것。

기상대가 집계한 주요지역의 강수량을 보면 江陵지역은 예년평균 12월과 1월강수량이 1백1·1㎜였으나 올겨울에는 26·4㎜에불과해연평균강수량의25·3%밖에 안돼 가장 가뭄이심하고 光州지방이 예년평균 강수량의 59·5%, 大田지방이 62·2%, 大邱지방이 70·2%, 부산지방이 73·7%밖에 못미쳤다。

기상대는 올겨울 강수량이 예년보다 적은것은 이번겨울이 대체적으로 난동현상을보여 눈이 적게왔기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기상대는 이달중순이지나야 예년보다많은강우량을 보여 겨울가뭄현상이일단해갈될수 있을것이라고 전망했다。

◇降水量대비 (단위㎜)

구분/지역	예년 12월 1월	작년12월 금년1월	대비
서울	63·7	41·6	−22·1
淸州	52·8	29·7	−23·1
大田	66·7	28·9	−37·8
全州	71·3	37·3	−34·0
光州	78·7	38·2	−40·5
大邱	42·1	12·3	−29·8
釜山	64·2	37·9	−26·3
江陵	101·1	26·4	−74·7

파열된 上水道송수관
보수늑장 住民골탕

【堤川=聯】충북堤川市義林洞과 靑田·東峴·明西洞등 4개동의 상수도용가 1천6백60가구 6천여 주민들이 상수도송수관 파열보수늑장으로 이틀째 급수가 중단되고있어 한겨울에 식수난을겪고있다。

4일 堤川市에 따르면 지난 1일 상오11시께 堤原郡松鶴面石里에서 재토작업을 하던 중장비가 강원도寧越郡酒泉面龍石里 南漢江 상류에 위치한 취수장에서 堤川市古岩洞 배수지로 연결되는 6백㎜의 송수관을 파열시켜 시내 靑田洞등 4개洞에 급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堤川市 상수도기술진들은 현재 응급조치로 수도물의대량손실만 막고있을뿐 근본적인 보수작업을 하지못하고있다。

이때문에 급수가중단된 4개동 1천6백60가구 주부들은 인근주택가의 우물물과펌프물을 길어다먹느라고 영하의 날씨에 곤욕을 치르고있다。

"無罪"高여인 檢察서 抗訴

서울지검 형사3부 金基睍부장검사는 尹景花씨 피살사건의 高淑鍾피고인(46)에 대한 1심의 무죄판결에 불복, 3일상오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항소장은 이사건 1심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14부에 접수됐는데 1심재판부는 이소송기록을 14일이내에 서울지검에 송부하고 서울지검은 7일이내에 서울고검으로,서울고검은 5일이내에 서울고법에송부해야한다。

검찰은 서울고법으로부터 소송기록이 접수됐다는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20일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게된다。

서울大 校内살포 불온油印物
1년새 30件 反政府선동

지난80년9월부터81년12월까지 서울大 교내소요사태때 살포된 유인물은 모두30건이며 이유인물들은 우리사회의 민주체제를 부정하는 내용으로「일반대학생의 수준을 넘어선 이론과 행동원리를가진자」에의해 작성된것으로 분석됐다。

서울大는 3일 공개한「학생운동유인물내용및해설」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유인물의 내용은 학원·정치·경제문제등 3가지로 구분된다고 밝혔다。

이자료에 따르면 유인물의 대부분은「혁명주체세력으로서의학생」을 부각시켜「결정적상황에서의 폭력혁명」을통해 정권타도를 선동하고 있다는것。

이자료는 또『유인물에 사용된 용어가 대학생의 수준으로는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불온한은 물론 상식적인 학생 선동용 구호를넘는 반국가 불온분자에 의해 사용된 모략적언사로 일관되어있고 그중 일부는 공산주의 주의주장을 학습한자에 의해 쓰여졌다』고 지적、『유물변증법에 바탕한 계급투쟁적 폭력혁명 주장을 방불케 한다』고 설명했다。

1월한달防衛誠金 3억5천8백만원

국방부는 지난1월 한달동안 3억5천8백38만원의 방위성금을 기탁받았다고 3일 발표했다。

이방위성금은 전국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2억7천2백만원, 언론기관모금이 5천5백만원, 지방자치단체경유 81만원, 그밖에 각기업체에서 3천만원을 각각 헌납한 것이다。

高麗大 4백64명學事경고 2학기에

高麗大는 3일 81학년도2학기 재학생가운데 4백64명을 학사경고처분했다。

이같은 숫자는 지난학기 6백99명보다 약간줄어든 숫자인데 과별로는 경영학과가23명으로 가장 많았다。

평점 4·5점만점에 1·75점 미만을 취득한 학생에 대해 내려지는 학사경고는81년5월 학칙개정으로 3회이상 받으면 출교처분을 받게된다。

단과대학별 학사경고학생수는 다음과같다。

▲법대=29명 ▲경영대=38명 ▲문과대=85명 ▲농대=65명 ▲정경대=30명 ▲이과대=59명 ▲공대=125명 ▲의대=10명 ▲사대=33명

過多징수 대여糧穀 상환금 말썽

【忠州=聯】충북槐山郡延豊面은 지난 80년말 면내의 냉해및 수해농가에 대여한 양곡을 현금으로 거둬들이면서 ㎏당 상환단가를 5백50원을 6백46원으로 잘못계산, 6백27가구로부터 9백37만7천원을 과다징수, 농민들의 큰 반발을 받았다。

버스、街路樹받아 승객8명 重輕傷
자전거 피하려다

【尙州=聯】2일하오 7시께 경북尙州郡功城面草梧里 국도에서 한일고속 경기6바2023호 고속버스(운전사 朴용재·49)가 길옆 가로수를 들이받아 버스에 타고있던 朴명식씨(37·尙州郡功城面草梧1里)등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는 서울에서 尙州로가던 버스가 마주오던 자전거를 피하려다 일어났다。

貨物船끼리 충돌 1隻침몰船員무사

【木浦=聯】2일하오 6시40분께 전남海南郡화원면 매월리 서북방5백m 해상에서 목포선적 화물선 영성호(24톤·선장 신현대)가 남진호와 충돌, 영성호가 침몰했다。

영성호에 타고있던 선장신씨등 2명은 남진호에 구조됐다。

한편 목포지구 해양경찰대는 두배의 선장을 업무상과실 선박매몰등 혐의로입건하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오늘立春 얼었던 江도 녹고…
중부지방 영하13~영하10도, 남부지방 영하9~영하5도등의 분포를 보여 당분간 추위가 계속되겠다고 예보했다。

◇오늘은 봄의 문턱에 들어서는 立春。立春을 시샘하는 추위가 마지막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계절의 변화는 정확해 꽁꽁얼어 붙었던 강의 얼음이 녹아내리기 시작,배들이 江心을 누비고있다。立春날의 우리나라기온은 서울영하 8도, 중부지방 영하10~영하7도,남부지방 영하5도~영하2도。중앙기상대는 5일에는 더욱 기온이떨어져 서울영하12도, 중부지방 영하13~영하10도,남부지방 영하9~영하5도등의 분포를 보여 당분간 추위가 계속되겠다고 예보했다。【3일하오 서울蠶室洞앞 漢江에서 權周勳기자 찍음】

권투選手 절반이 이상腦波

한국병원 洪寬和씨 한국최초「매맞는 복서」博士論文

다운·對戰회수 많을수록 높아
60戰이상 65%、캐리어·腦이상 비례
失語症등후유증…과학적관리 아쉬워

웬만한 권투팬이라면 누구나 화끈한 KO펀치에 열광한다。때문에 연승KO퍼레이드를 기록하는 권투선수는 어느 인기인보다도 폭발적인 팬의 사랑을 받는다。그러나 그 KO펀치를맞는 선수들의 입장을 생각해보는 사람은드물다。洪寬和씨(35·한국병원 신경정신과장)는 이「매맞는 복서」들을 연구、한국최초로 권투박사가 된사람。권투를 즐기려면 선수들의건강을 보호해주고 관리해줄줄 알아야 된다는것을 가르쳐주고있다。

洪씨의 학위논문은「권투선수에 대한 뇌파학적고찰」이다。

정신과의사로 만17세~26세사이의 아마추어및 프로현역선수 86명을 대상으로 뇌파검사와 밴더 게스탈트씨검사를 통해 같은 나이 또래의

◇洪寬和씨

권투선수가 아닌 52명과 대비해서 얻은 결론을 논문으로 썼다。연구결과 비권투선수에서 5·8%가 이상뇌파인데비해 권투선수군(群)에서는 86명가운데 47·7%인 41명이「이상뇌파」라는 충격적인 결론이 나왔다。

또 권투선수군의 이상뇌파 정도는 경기회수、KO및 다운회수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회수별로 보면 30戰미만의 선수군에서 이상뇌파발현이 30·6%인데 비해30전~60전의 선수는 55·6%、60전이상 선수의 경우 이상뇌파가 65·2%나 돼 선수로서의 캐리어와 뇌의 이상이 비례하고있다。

또 KO나 다운을 경험한 선수가운데는 1회~4회 당한 선수는 51%가、5회이상 당한 선수군은 66·7%나 이상 뇌파를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

『권투팬의 입장에서 부터 착안을 했다』는 洪씨는『어느 경기종목의 선수보다「머리가격」으로 인한 뇌손상을 많이 당하는 권투선수들에대한 건강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사실에 걱정이 돼 연구를 끝까지 할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洪씨가 조사한 방법은 뇌파검사와 밴더 게스탈트씨검사등 두가지。

머리에다 20여개의 전극을 연결、뇌파의 사이클(Cycle)과 볼트(Volt)를 측정하는 뇌파검사와 그림이 그려진 9장의 카드를 보여준뒤 기억해 다시그려내게해서 뇌손상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이결과 뇌파검사때와 마찬가지로 밴더게스탈트씨 검사에서도 권투선수들의 이상뇌파 발현빈도가높게나타났다。

연구성격상 혼자서 관찰한 결과라고 말한 洪씨는『의외로 괴로왔다』고 털어놨다。

洪씨에 의하면 외국의 유수한 체육관의 경우 뇌파검사기를 비치해 한게임을 끝냈을 때마다 뇌파검사를 해보는 외국선수들에비하면 우리나라 권투선수들은 거의가 이같은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

『운동성격상 두뇌손상의 가능성이 높은 권투선수들의 경우 게임이 끝났을 때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 이상뇌파 발현의 악화를 막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지적한 洪씨는『훌륭한 권투선수들을 기르기위해서는 수시로 뇌파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시로 뇌파검사를 받는경우 두뇌손상의 악화는 막을수있다는게洪씨의주장이다。

권투로인한 두부손상은 조기치료를 하지않을경우 급성후유증으로 혼수상태、기억력상실、섬망、불안증상이 나타나며 만성적손상은 반신불수、실인증、실어증、치매등의 후유증이 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투를 시작하려는 젊은이들이나 이들을 지도하는 권투인들이 특히 명심해야 할「과제」가 아닐수 없다。【朴珍列기자】

결혼예물, 보석및 시계
미도파 보석부
다이아몬드·에메랄드·루비·사파이어·진주·오팔
536-1692

약속어음 億臺위조
7천만원 詐取 4명구속 둘手配

서울시경은 3일 억대약속어음위조단일당6명을 적발, 朴萬洙씨(43·전과2범·道峰區上溪洞637)등 4명을 범죄단체조직·유가증권위조및 사기등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金南錫씨(55)등 2명을 같은혐의로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朴씨등은 지난달10일께 수배된 金씨가 구입한 경기은행약속어음용지에 金모씨(43·경기水原市梅香洞) 명의의 가짜약속어음1천1백80만원짜리를 만들어 金鍾根씨(40·鍾路區樂二洞)에게 이가짜약속어음으로 부채3백30만원을 갚고 잔금8백5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등 13장 1억2천만원어치를 위조해 7천2백5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京畿은행의 약속어음용지가 유출된 경위를 수사중이다。

北傀 權力구조 큰波紋
金日成·金正日·金聖愛불화심각

【東京2日=宋孝彬특파원】金日成의 전처 소생인 金正日과 후처인 金聖愛와의 불화로 北傀 권력구조에 큰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3일 통일일보가 보도했다。작년12월 조총련의 전조직을 동원、2월16일 金正日의 41회생일을 대대적으로 치르려던 계획을 요즘 金日成의 지시로 갑자기 축소토록 결정하는등 金正日과 金日成父子의 싸움으로까지 발전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金聖愛와 金正日의 불화와 암투로 충격을받은 金日成은 지병인 고혈압과 뇌선경증이 악화되어 수일동안 몸을 움직일수 없을정도로 重態에 빠져 平壤에서는 金日成의 重病說과 함께 死亡說까지 나돌아 권력층상부의 동요마저 있었다고 이소식통은말했다。

이같은 동요를 막기위해 1월20일자 北傀의 로동신문은 金日成이 하루에 수개국의 외빈을 만났다는 기사를 크게보도、金日成이 건강함을 과시했다。

한국일보 詩壇

立春

黃蒙山

1

당신의 아늑한 품에
곤히 잠든 草木群生
몽달鬼 말을 쓰고
넋두리만 늘어놓다。
꿈속에
드리운 허물
소스라친
비명 소리。

2

눈부신
아침 햇살
술렁이는
어진 목숨들
한 올
한 올
눈을 뜯는
아픔의 소나타여
꽃사연
입안 가득 머금고
빛을 뿜는
日月이여。

BIG SEVEN무역선물센타
●우황청심환, 녹용등
●각종 귀국선물 염가봉사
678 BLOOR ST. W.
☎ : 533-7966 김 영 철

JAGUAR 종합보험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자동차보험.
＊비지네스 보험.
＊집보험.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거북장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새벽2시
금, 토 : 오후8시30분~새벽2시
: 오후8시30분~새벽1시
목. 금. 토. 일 : 권순근악단 출연
5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 883-9407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광고 신청은
한국일보사
●일반광고 : 최성조
●매매구인광고 : 박경옥
533-2361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 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 주십시오. ☎ : (416) 222-9480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서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사라져가는 民俗놀이 이대로좋은가

5人의學者가 보는 實態와 傳承방법

놀이의 계절에 놀이가 없다. 지난달 25일은 음력 설이었고 4일은 立春, 오는 8일이면 정월대보름. 예부터 이 무렵은 널뛰기 연날리기 쥐불놀이 돌싸움등 온갖 놀이가 성행하게 마련이었으나 요즘의 우리주변에서는 그런 민속을 보기가 어렵다. 음력 정월만 그런것이 아니고 한해를 통틀어서도 겨우 민속경연대회에서나, 또는 민속촌같은 곳에서 半직업적으로 행해지는 연희가 고작이다. 한국의 놀이는 본래 한마을이 함께 웃고 즐기는 가운데 한해의 희망을 새로이 다지고 공동체의 화해를 도모하는 주민공동의 광장이었다는 점에서, 놀이의 상실은 단순한 아쉬움에 끝나지 않는 위기의식을 주기도 한다. 「과연 한국의 놀이는 그 정체가 무엇이며, 이대로 사라져도 좋을까」를 묻고 그전승방법을 5명의 관계학자들로부터 들어 특집한다.

共同體의식 다지는 서민의 生命力

널뛰기·연날리기·쥐불놀이 등 150여種

再生의 祈願 담은 鄕土발전의 原動力

半직업적演戲·競演 탈피…마을잔치로 生活化를

민속학자 任東權교수(中央大)는「月刊문화재」2월호에 기고한「민속놀이의 意義와 전승문제」란 글에서『한국인의 놀이는 우리 민족의 자연에 대한 경외와 조상숭배에서 나온 제례의식이 소박한 예술적 감흥과 어우러진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국의 민속놀이는 다듬어지지 않고 정돈되지못한 원초적인 예술이기는하나 진한 향토성과 민족성을 담고 있다. 洞祭를 올릴때 사용되었던 農樂은 각지방마다 특색있는 가락을 담고 있고, 중부이남의 줄다리기、이북의 그네뛰기、全南 서해안지방의 강강술래、嶺南지방의 쾌지나칭칭등도 모두 향토적 특징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金泰坤교수(경희대)는「新年祭의 실상」(月刊문화재2월호)이란 글에서『한국인의 놀이는 단순하게 祭儀的이거나 흥취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의 생성과 새로운 생산을 의미하는 원대한 우주론을 담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正月 놀이인 볏가릿대 세우기、달집태우기、다리밟기、부럼、달맞이、賜土흥치기、고싸움、줄다리기등은 새해가 시작되는 정월에 풍요와 건강을빌고 액을쫓는놀이들이지만 지난해의 생활리듬에서 벗어나 새해의 새활력을 필요로하는 서민들의 욕구가 담겼던것』이라고 주장한다。

金光彦교수(仁荷大·민속학)는 새著書「한국의 민속놀이」에서 한국 놀이의 성격과 종류를 분석했는데 그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1백50여종의 놀이가 있다。

그는『한국인의 놀이는 문화적 뿌리가 깊거나 형이상학적인 철학을 담고있기보다는 승부놀이를 통해 협동·愛鄕心을 기르는데 주된 목적이있다』고 말한다。그가 분석한 우리나라 민속놀이의 성격은 農耕儀禮와 전통사회를 배경으로 생성되었기 때문에 지역적인 향토놀이(44·26%)가 가장많고 대부분이 정월대보름(43%)에 몰려있으며 남자의 놀이가 여자만의 놀이보다 3배가많다。또 개인놀이보다 승부를 결정하는 상대놀이(59·83%) 집단놀이(33·33%)가 월등하게 많고 강한 오락성(58·82%)을 띠고있다。

민속학자 沈雨晟씨는 저서「민속문화와 민중의식」에서『한국인의 놀이의식은 평등의식을 기초로한 사회발전의 슬기』라고 말한다。

그는 강강술래、투석놀이등은 단 한사람의 손이 이어지지않아도、또 단 한명이 크기가다른 돌을던져도 놀이의흥이 깨져버리는 강한 공동의식을 담고 있다고 설명한다。그는 이 공동의식이 사회발전을 다져나가는 서민의 생명력을 낳게 한다고 덧붙인다。

李相日교수(成大·독문학)는『한국인의 놀이의 출발은 굿에서 이루어 졌으며 그 의식속에는 生과 死、그리고 죽음을 이기는 再生의 기도가 응축되어있다』고 말한다。그는 西歐의 놀이의식도 한국인의 놀이의식과 동일하지만 西歐人들은 자유의식과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古代의 놀이를 축제로 발전시킨데 비해 우리는 강한 제의적 성격때문에 미신행위로 몰아붙여 축제가 없는 민족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잃어버린 우리의 축제를 되찾기위해서는 축제의 출발점인 놀이를 보급시켜야하며 정부적차원에서 놀이문화를 육성해야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인의 놀이문화 본답과 전통민속놀이의 바른 계승을 위해서는 교육적차원에서 놀이에관한 바른의식을 심어주고 각종민속경연대회를 잔치나 축제로 변형시켜야한다고 여러민속학자들이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

任東權교수는『민속놀이가 사라져 가는것은 한국인의 공동체 의식이 희박해지는데 원인이 있다』고 진단하고『각급학교의 체육 무용시간을통해 우리의 민속놀이가 갖고 있는 공동체의식등 올바른 놀이정신을 교육시키고 실기도 익히게해서 민속놀이를 어려서부터 생활화 시켜야한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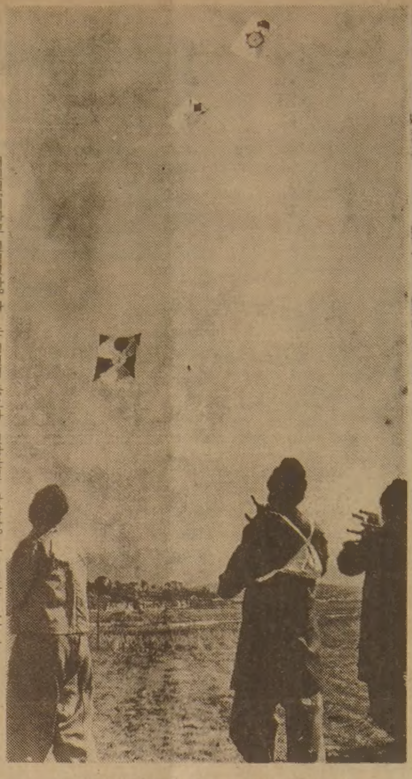
沈雨晟씨도 한국인의 놀이에 관한 의식부터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속놀이는 우리생활과 괴리된 과거지향적인것이라는 생각을 품고있다고 말하고『해마다 실시되는 민속놀이경연대회는 경연형식에서 탈피하여 마을잔치나 민속예술의 제전으로 그 성격을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민속놀이는 각 지방 특유의 문화를 담고 있기때문에 서로 경쟁하여 등수를 매길수가 없다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金光彦교수도『전국민속경연대회나 市道대항 각종민속경연대회가 경쟁에 치우쳐「쇼」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행해지지도않는 놀이를 경연대회에 출전하기위해 몇몇 기능인들의 놀이로 연희한다는것은 놀이자체를 변질시킬 염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각지방놀이는 반드시 현지에서 공연케하여 마을어린이들에게「살아있는 역사」를 배우게하고 어른들에게는 일치된 향토애를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李相日교수도『이제는 놀이를 특정인의 연희능력에 의존하지 말고 전통은 전통대로 고수하면서 현대의 생활속에 끌어들여 모든 연령층이 함께 즐길수 있도록 재창조해야 한다』고 말한다。

학자들은 놀이의 대중화를 위해서는『정부가 놀이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틀부터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놀이의 계절에 놀이가 없다。새해의 밝은 꿈을 다지고 마을공동체의 유대를 새롭게 가꾸던 민속놀이의 상실은 무엇을 뜻하는가。

나의 이력서

〈題字·元一漢〉

元一漢 ㊺

45년10월 다시 한국에

各上陸地서 通譯으로 參戰

내가 해군에 근무하는 동안 아버지는 장로교 선교부의 특별기부과 책임자로 미국전역을 순회강연했고 쌍둥이 동생 요한과 제한은 프린스턴神學大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다。

해군장교복장은 소위일경우 어깨에 큰별마크를 달게돼 있다。나는 해군정장을 하고 어느 좌석에 갔을때「저렇게 젊은 준장도 있을까」하고 부러워하는말을 몇번 들었다。

콜로라도에서 일본어교육과 뉴욕에서 군사훈련을 마친다음 배치된 곳은 하와이의 진주만이었다。이때가 44년5월이었다。주된임무는 일본포로를 면접、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거였다。그러다보니 진주만에 앉아있을때보다 각지역 상륙작전에 일본어통역장교로 배치되는때가 많았다。

괌도에 다녀온 일도 있고 필리핀 상륙작전에 참가하기도 했다。이들 작전과정에서 나는 많은 일본포로들을 만났는데 그중에는 한국인포로도 몇사람 있었다。

내가 한국인이란 것을 알고 한국어로 말을 걸자 그들은 크게 놀라는 것 같았다。이때 만난 한국인들은 군인은 별로 없었고 군속이 아니면 노무자였던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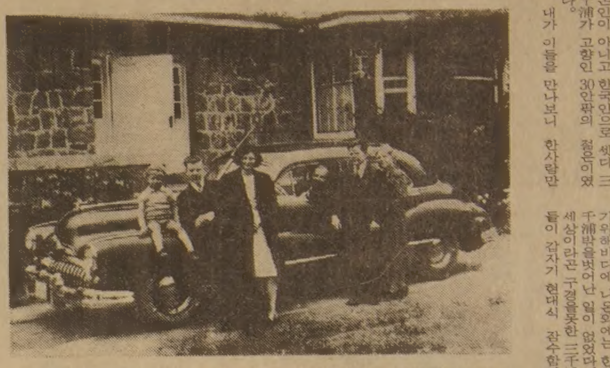
1944년 가을께로 기억된다。한번은 미해군 잠수함이 對馬島근처에서 어부 3명을 붙잡아 진주만기지로 데려온 일이 있었다。

그당시 태평양전쟁이 심각한 단계에 접어들어 어선도 군작전에 관련되지 않았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군사정보는 큰일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 실마리를 얻을수도 있었고 더구나 이 어선이 간첩선으로 신고됐던 것이다。

잠수함에서 인계된 어부들은 일본인이 아니고 한국인으로 셋다 三千浦가 고향인 30안팎의 젊은이였다。

내가 이들을 만나보니 한사람만 釜山에 가본일이 있고 물론 고기잡기위해바다에 나온외에는 한번도三千浦밖을벗어난 일이 없었다。바깥세상이라곤 구경을못한 三千浦어부들이 갑자기 현대식 잠수함에실려 태평양한가운데까지 끌려왔으니 정말전쟁이 빚어낸 꿈같은 여행이었다。



◇1946년 한국에 다시돌아와 延禧洞 우리집앞에서 가족들과 기념촬영。㊧로부터 어머니 동생 아버지 아내 필자 장남漢光。

終戰직후 掃海艇일원으로 長崎·釜山서 服務

한국어부들은 포로수용소에서도 구별해 대우했고 그뒤 한국에 무사히 귀환된것으로 알고있는데 살아있으면 70세가량됐을 것이다。

45년 봄이던가 B 29가 한국상공을 촬영해온 사진을 나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다가 얼마나감격스러웠는지 모른다。항공사진속에는 延禧캠퍼스가있고 그옆에분명히 우리집이 보였기 때문이다。

종전과함께 나는 소해정에 배치돼 오끼나와등 태평양지역 도서에 상륙했다。다라와島에서는 일본군이 모두투항한 다음에도 한국인 하나가 정글속나무위에 숨었다가 미군에 의해 뒤늦게 발견된 일이 있다。

전쟁이끝난뒤 해안의 지뢰제거작업이 주임무인 우리소해정은 원자탄이떨어진 나가사끼에도배치돼 무진 고생을 했고 46년 정월에도 釜山항에서 임무를 수행했다。

나는 함대장에게 한국이 나의 고향이라는 사실을 보고하고 한주일 휴가를 얻는데 성공했다。釜山에서 서울까지는 기차로 꼬박·24시간이 걸렸다。지금 새마을호로 4시간50분이면 달리는 경부선이 그렇게오래 걸리다니 쉽게 곧이 들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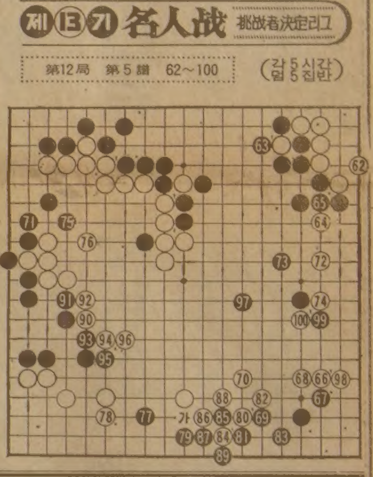
서울에는 아버지와 동생 得漢이 이미 와있을때였다。아버지는 해방과함께 미국방성 한국관계 통역관 및 군정장관 아놀드장군과 하지장군의 고문으로、동생은 육군하사로 각각 45년10월 한국에 도착했던 것이다。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2局 第5譜 62~100 (각 5시간 덤 5집반)

白(6段)姜哲民〈0勝3敗〉

黑(4段)鄭壽鉉〈1勝2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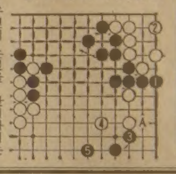


일순에 計家바둑

본보에서는 그간 쪼들리던 白이 黑의 방향착오덕분에 대세를 일거에 만회하는 장면이 나타난다。아무리 유리한 국면이라도 결코 방심을 못하며 반대로 아무리 불리하더라도 여전의 기회가 생긴다더니 바로 그실증을 보게되는 것이다。

과정을보면 白66·68로 중앙작전을 개시하여 일이 묘하게될때 黑은 71의 큰곳을 선착하여 여기까지 순풍에 돛단격이었는데 白72의 무리한 수단을 다스리지 못하고 黑73에 씌운것이 문제였다。

이수로는 참고도처럼 黑1에 내려서서 白2를 종용한다음 3、5로뛰어 白을추격한겸 중앙白세를 삭감했어야 黑은 힘안들이고 이길수있었다。5까지의 黑은 여차하면「A」에 젖혀 상측에 연락할수 있는 곳이었다。



절호의 기회를잃고 白74로 되자 형세는 갑자기 근소한 차로 변했다。

黑77은 우변의 손실을 만회하려는 침투작전。그런데 여기서 黑79가 또 허약했다는 평이다。79는 85자리에 뛰어놓고 黑79와 黑「가」를 맞보고싶다는 국후중론。본보는 白80이하의수단을 자초하여 결국 黑89로 구차스레 건너간 때문에 이것으로 계가 바둑이다。

白은 기세를 올리며 90으로 중앙을 확장하고 黑은 97로서 다음99를 노린다。이때 白98은 최강의저항。자、白100으로 끊은다음 어찌되려나。서로가물러서지못할인참이다。【一凡】

文人百人의 1백字發言

「韓國文學」"오늘의한국文學에붙여"

風速計

主人자리 잃은 過去를 반성

分斷時代 아픔 昇華 시켜야

感情에치우친 批評벗어나야

原稿紙 바깥일 關心 줄이고

서로 따뜻이 감싸는 風土를

독자의 低俗·저열화도 문제

우리나라 문학인들은 한국 문학의 現位置를 異邦문화에서 벗어 나와 우리자신의 고향에 조용히 귀의해야 할 자리로 판단하고있다。誌齡 1백호를 맞은 月刊문예지「韓國文學」은 문학인 1백명에게『오늘의 한국문학에 붙이는 1백字(원고지반장)發言』을 받아 우리문학에 대한 自省의 소리를 모으고、바른 指向點을 제시하고 있다。

문인1백명의 발언은 최근 우리문학계가 관심을두어온『역사의식』과『진정한 民族文學의 수립』에 집약되고있다。투철한 한국어의 인식、깊이있는 전통의 탐구、민족의 영속적인 이념의 모색을 특징으로하는 이들은「主人」으로서「主人의 것」을 잃고 있었던 우리의 과거를 크게 반성하는데서출발한다。

『이제 耳順도넘은 우리新文學이 이이상 서구문화와 서구전통의 식민지놀음을 하도록 방치할수는 없다』(吳世榮·시인)는 1백자 발언은 문단전체의 그같은 흐름을요약한다。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자기것의 의미를 모르고 우리것은 덮어놓고 낡은것 모자란것으로 치고、서구선진국의 것은 모조리 새롭고 좋은것으로 여기는 풍조가 짙은 나라도 드물것이다』(朴花城·소설가)는 발언도 자기의것을 홀대했던 그릇된풍토를 뼈아프게 반성한다。

『美國文學은 미국의 것이고、영국문학은 영국의 것이다。우리문학이 우리의 것이려면 우리문학다와야만한다』(朴成龍·시인)는 말은 우리민족의 정신과 정서를 바탕으로한 뿌리깊은 민족 문학작품을 기대한다。우리 문학과 우리문화가 우리다우려면『민족적 동일성으로 돌아가서 민족의 섬질과 문화를 다시 회복하지않으면안된다』(朴苗熙·평론가)。

또한『역사의식에 눈 떠야하며』(黃希榮·시조시인)、『실제적인 민족 전통 문화의 재창조와 계발을 도모해야한다』(朴光緖·소설가)。

전통문화의 계발과 새로운 창조와 함께『분단된 땅덩어리에서 살고 있다는 진통의 역사를 늘상 기억하고 아파해야 하며 평화 통일을 갈망하는 작품、분단시대의 아픔을 민족적 서사시로승화시킬수 있는 大 로망이 쓰여질수 있어야한다』(朴鳳宇·시인)。

우리문학계는 서구문화와 서구문학의 직접적인 이론도입에 저항감을 느끼고있다。

『이제부터는 가능한대로 서구문화와 문학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는 작업이 필요하다。외국문화와 문학의 이론이 우리문학에 끼친 영향은 영향이라기보다 횡포였다고 생각한다』(이우걸·시인)。

그「횡포」는 批評文學에서 특히 심해、비평의 이론과 인용논리는 항상 외국인의것이었던 때가 있었다。『우리의 신문학도 60년이 넘는 역사를 가졌고、우리의 동양정신의 깊이는 서구정신이 따를수 없는 것이므로 우리것으로 비평이론을 끌어가야할 때다』(具慶書·시인)。

1백인의 1백자 발언에는 평론가들에대한 비평도 적지않게 던져진다。『비평가들은 反知性的인 情實관계와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친 비평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朴喜璡·시인)『우리 문학은 좀더 정직해져야 한다。애드벌룬처럼 띄워올린 거짓과 허세를 바로보고 비평할 수 있어야 한다。어떤 유행사조에 옆으로 끌려 가는 문학이 아니라、높은데로 스스로 올라가려는 그런 문학을 해야한다』(全商國·소설가)。

우리 문학이 원고지 칸 바깥의 일에 불필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한 반성의 발언도 많다。『문학은 혼자 하는 것이라는 상식에 좀철저했으면 한다』(姜桂淳·시인)、『우리 문학은 매달려 있음의 그것이다。

인기에 매달려 있고、단체에 매달려 있고、평론가의 批評에 매달려 있고、매스컴에 매달려 있다。그것들에서 손을 놓아 버려 한없는 무한공간으로 떨어져 나가 보는 용기가 필요하다』(鄭鎭圭·시인)는 발언은 창작과 창조작업은 자유로운 공간과 걸림이 없는 自由人의 상태에서 되풀이될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한다。

문학을 하는 사람들끼리의 분열과 反目에 대한 반성도 높아『우리 문단에는「그레셤의 법칙」이 넘나들어、惡話(貨)가 良話(貨)를 몰아내、좋은 말보다는 나쁜말이 횡행하고、좋은 작품보다는좋지않은 작품이 더 앞서가는』(尹石重·아동문학가) 현상을 비관한 말과『살이 살을 무는 불행한 풍토없이 따뜻하게 이해하고 감싸주는 가운데 저마다 자신의 문학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尹興吉·소설가)는 말은 합意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단의 反目을 반성한다。

우리나라 독자들에 대한 걱정의 소리도 여기저기서나와『指針이 없는 일반독자들의 저속성、저열화는 이제 가공할 추세에있다고 본다』(康信哉·소설가)『날로 더 내려가는 독서현상、이 현상에 같이 떠내려가지말고 좋은문학을 가꾸어가야 한다』(柳在用·소설가)。

그러나『우리 문학에 나타난 제반 문제에「모두 괜찮다」고 말하고 싶다。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서두르지 않아도 시간이 가장 정확하게 그 것들을 정리해 줄 것이니까』(文貞姬·시인)하는 낙관적인 자세도 나타나있다。

文化短信

孝行·著作賞시상 三星 文化재단서

三星미술문화재단은 지난달 30일 중앙일보회의실에서 제11회 도의문화저작상과 제7회 孝行賞 시상식을 가졌다。

도의문화저작상은 金碩中·姜泰基·朴星宰씨가、孝行賞은 沈海龍씨등 4명이 각각 받았다。

2회 綠園문학상 甘泰俊·金載弘씨

제2회 綠園文學賞 수상자로 詩부문에 甘泰俊씨 (수상작「철새」)、評論부문에 金載弘씨 (수상작「萬海詩와 原理」)등이 뽑혔다。고료는 각 50만원씩。시상식 2월27일 하오6시 조계사 불교회관。

安英一 油畫展

在日화가 安英一화백이 4일부터 9일까지 高麗文藝院 초대로 미도파화랑에서 유화전을 갖는다。

평남鎭南浦태생인 安씨는 서울師大를 졸업한후 日本으로가 20여년간 구상작품을 그려왔다。

그의 작품은 주로 농촌의 풍경들을 주제로 하고있으며 몇개의 정물도포함되어있다。

李德姬 1회逆轉敗

【디트로이트2日UPI=聯合】韓國의 李德姬는 1일 美미시간州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국제테니스대회 첫날 단식경기에서 美國의 무명선수 조안·러셀에게 2-1(4-6 6-2 6-0)로 역전패하고 말았다。

海外토픽

土星위성4개 發見

★美 보이저2호 사진分析

무인 우주탐색선 보이저2호가 보내온 사진들과 자료들을 분석하고있는 과학자들은 토성주위를 돌고있는 4개의 새로운위성을 발견했으며 또다른 2개의 미확인된 위성을 조사중이라고 미항공우주국(NASA)이 2일 발표했다。

이로써 현재까지확인된 토성의 위성수는 총21내지23개로 늘어나게 되었는데 보이저호의 우주탐색이 시작되기전 알려졌던 위성수는 10개였다。【패사디나=AP】

物體3面 동시촬영

★美X線레이저裝置개발로

미국은 세계최초의 X선레이저장치를 비밀리에 개발했으며 이 장비를 네바다주의 지하핵실험장에서 실험해왔다고 미국의 사이언스誌가 최신호에서 보도했다。

이 장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로런스·리버모어 국립연구소 과학자들이 개발한 이 X선레이저장치는 그 장치가 내포하고있는 군사적인 성격때문에 지금까지 비밀로 취급되어 왔다고 전했다。

X선레이저촬영은 물체의 3면을 동시에 촬영할수있기 때문에 생물학분야의 연구에 대변혁을 초래할것으로 평가되고있다。

이 촬영방식을 이용할경우 생체세포내부의 3면을 동시에 투사、각 원자간의 차이를 일목요연하게 밝혀낼수있으며 10조분의1초정도의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세포내부의 작용과정도 관찰할수 있는것으로 알려졌다。【뉴델리=PTT】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7〉

朴婉緖 作 / 金光培 畵

숨바꼭질 ⑭

그런 말을 하는 유원장의 태도는 남의 어줍잖은 간섭이나 통속적인 상상을 거부하는 무로 경직된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지는 한마디 묻지않을 수가 없었다。

『오누이의 집에 전쟁고아만을 고집하신 무슨 특별한 까닭이라도 있나요?』

『까닭은 무슨 놈의 까닭。그야 전쟁은 끝났어도 고아야 얼마든지 있지。그렇지만 그애들하고 나하고무슨 상관이야?』

유원장이 떼를 쓰는 아이모양 분별없이 심술궂게 굴었다。

『무슨 상관은요? 고아원장이 고아들하고 상관이 없으면 어떡해요? 전쟁때문에 고아가 됐건 태평성대에 고아가 됐건 고아는 고아일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잖아요? 고아원장이면 원장이지 고아가 된 원인까지 캐가며 고아를 수용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권리고 나발이고 없어。나는 이제 고아원장이 아니니까。전쟁이 끝나고 잘 사는 세상이 싸지는 똥같은부도덕、그 부도덕이 싸지른 똥들이 불륜의 씨를 내가 왜 주어다 길러? 똥이 싸지른 또똥을 하필 왜 내가 처? 나、잘 사는 세상한테 그렇게 빚진거 없다구』

『그럼 전쟁한테도 빚 진거 있으세요?』

유원장의 눈빛에 잠깐 날카로운 공포의 빛이 가라앉았다。그는 대답대신 담배를 피워물었다。

고아원이있는 동산 뒤쪽에는 유원장의 아버지 묘소가 있었다。수지는 아이들을 데리고 그 봉분위에서 해바라기를 하기도하고 노래를 부르기도했었다。목이는 곧잘 음정이 불확실하고 감정이 과장된 달콤한목소리로 옛날의 금잔디를 불렀었다。

아이들을 통해서였는지 사모님을 통해서였는지 유원장의 아버지는 목사였는데 6·25때 순교했다는소리를 수지는 들은일이 있었다。고아원도 옛날의 예배당자리였고 아버지뒤를이어 목사가 될것으로 촉망받던 유원장은 그후 신학공부를 그만두고 고아들을 하나 둘 주워다 기르기시작해서 마침내「오누이의 집」이 생겨났단 얘기를 모르는 원아는 거의없었다。

수지도 그이상은 알필요도없었고 알려고도 들지않았다。

순교라는 말은 너무도 완벽하게 거룩하고 아름다와서 안이한 상상력따위로 오염시킬 엄두도 나지않았다。

수지는 문득 순교라는것도 그녀의 생의 어느 한순간을 엄습한 그 불가사의한 악의(惡意)와 미친듯한 잔혹성을 닮은 운명을 은폐하고있어 그것이 탄로날까봐 그리도 견고하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겉껍질을 쓰고있는게 아닐까하는 생각을 했다。

수지는 가슴이 뭉클하면서 유원장에게 지금까지의 그것과는 또 다른 친화감을 느꼈다。그건 기묘한 친화감이었다。마치 길을 가다가 자기하고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났을때처럼 가까와지고 싶은게 아니라 민망해서 우선 피하고싶은 그런 친화감이었다。

다시 한때의 거간꾼들이 그들이 앉아있는 논두렁길을지나가는 바람에 그들은 논바닥으로 내려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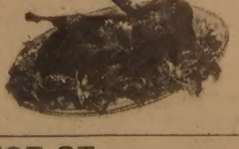
『밝진 몰라도 땅장사로번한 신쥠넘은 상상도 할수없어요』

수지는 다시 논두렁에 걸터앉으며 말했다。질척한 논바닥에 들어섰던 두사람의구두는 엉망이었다。수지는 화난듯 맞장구를 쳤다。

京華樓 (경화루)

PEKING—RESTAURANT

● 진미의 해산물요리
● 국수, 야채전문
● 항상上海점심 스페샬
* 겨울 스페샬 * (Peking Duck & Fire pot)



257 COLLEGE ST.
(스파다이나 × 칼레지)
전화 : 979—2422
영업시간 : 11 : 30A.M.~10 : 00
(매주 월요일은 문닫음)

종 교 서 관

● 일반서적
● 기독교 서적 대량입하
● 성가및 설교테이프
● 각종 선물용품
● 백과사전 취급

시간 : 월~토 오전10:30~오후7 : 00

714 BLOOR ST. W.
(아리랑하우스 2층)

♡ 주간여성 ♡
인기절찬 판매중!
2월7일자

주간女性

31살 미모의 女僧이 대학首席졸업
—東大 불교학과 海住 스님의 캠퍼스 追憶

〈탤런트 林智英〉

두女大生의 수석 졸업 秘訣
行者 스님이 서울大에 合格
빛나간 대학 知性의 문젯점
續·聽女列傳 吳나라 西施
여배우들 러브신 촬영 秘話
별짜人生 산 헬드클럽 관장
컴백說 도는 金昌淑 데뷔記
일꼬 夫婦가 조각배 타고 고기잡이 同苦同樂
캐나다 首相 부인의 男性 편력 自叙傳 2彈!

판매처 : 각한국식품점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畫

"어, 이런! 지갑을 잃어 버렸어!" "사무실을 뒤져보지요"

"범스테드씨, 부인께서 지갑은 집에서 찾았대요" "고마워라!"

"경대위에 있었는데 지갑안에 30달러가 들어있어요" "전화 걸어줘서 고마워, 여보"

"그리고 발견자 보상금은 줘서 고맙구요"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許永模·金基澤 準決 진출

許 蘇선수에 1회 KO승

印尼 아마복싱

【자카르타2日AP=聯】 제5회 인도네시아 대통령盃국제 아마복싱대회에 출전한 許永模(라이트플라이급)와 金基澤(라이트급)이 각각 준결승전에 진출, 이미 銅메달을 확보했다.

許永模는 2일 열린 라이트플라이급 준준결승전에서 蘇聯의 에프레노프·빅토르의 턱에 오른쪽 스트레이트 결정타를 터뜨려 1회45초만에 KO승, 4일 필리핀 선수와 준결승전을 벌이게 되었다。

한편 라이트급의 金基澤도 日本의 아라이·히데오를 판정으로 물리치고 준결승전에 진출, 蘇聯선수와 맞서게 되었다。라이트 웰터급의 金東吉은 인도네시아 선수와 준준결승전을 갖게 된다。

仁川大 射擊部창단

男女5명으로

仁川대학이 2일 남자4·여자1명등 5명의 선수로 사격부를 신설, 동교 강당서 창단식을 가졌다。

金玟河학장을 단장으로한 仁川대학 사격부는 남고사격의 에이스인 漢榮高 權泰宇·曺民鎬와 仁川體高 金東勳등 우수선수 5명을 받아들여 창단됐다。

◇사격부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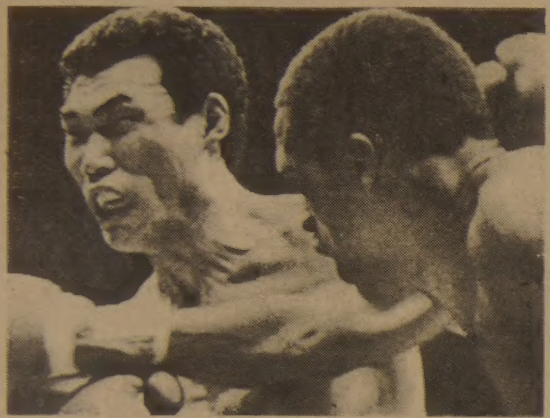
▲단장=金玟河(학장) ▲부장겸 감독=朴壽福교수 ▲선수=曺民鎬 金경채(이상 漢榮高) 李達雨 金東勳(이상 仁川體高) 承英美(仁一女高)

헤스選手 우승

世界알파인스키

【실라드밍(오스트리아) 2日AP=聯】 스위스의 에리카·헤스(19)는 2일 오스트리아의 실라드밍에서 속행된 세계알파인스키선수권대회 여자대회전 경기에서 2분37초17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이날 은메달은 2분37초9를 기록한 미국의 크리스틴·쿠퍼에게 돌아갔으며 히텐슈타인의 우르술라·콘제트가 2분38초03으로 3위를 차지했다。



◇도전자의 可恐할강타 WBA 주니어·미들급 타이틀전 3라운드에서 도전자인 美國의 데이비·무어가 챔피언인 日本의 미하라의 턱을 강타하고있다。【東京2日AP電送=聯合】

전후기 新人王대결

全韓國 新人王戰 14일 개막

◆…81년도 전한국신인왕전결승전이 13일과 14일낮12시부터 문화체육관서 열린다。日刊스포츠와 MBC·TV 공동기획으로 열리는 이번대회에는 각체급의 전후기 신인왕들이 출전, 각각 8회전을 벌여 신인왕 타이틀을 다투게된다。

◇경기일정

◆13일

▲J·웰터급=徐北洙(덕성)―柳炳善(승룡) ▲J·플라이급=池末五(원진)―孫五笙(괄승) ▲J·밴텀급=裵孝鎭(동근)―安益魯(부산동아) ▲J·페더급=梁承敎(덕성)―朴憲永(동양) ▲J·라이트급=金載源(청우)―申雨燮(와룡) ▲웰터급=朴在容(남부종합)―金德奉(원진준호)

◆14일

▲J·미들급=李明基(청소년)―金奉哲(대원공작) ▲플라이급=林亨植(동일)―朴正萬(해태) ▲밴텀급=權燦(상원)―張俊榮(오성) ▲페더급=柳誠鉉(원진규철)―金成大(성남) ▲라이트급=金永鎭(한국화)―朴恒(동안) ▲미들급=金景淳(일화)―文晶源(해태)

미하라 KO로 王座뺏겨

WBA J미들

6회 3번씩다운

金泰式·鄭巡鉉 재기전 벌여

◆…美國의 데이비·무어(22)가 WBA주니어 미들급의 새 챔피언이되었다。무어는 2일 저녁 東京서 벌어진 WBA 주니어 미들급 타이틀매치에서 챔피언 미하라(26·三原正)를 6회53초만에 KO로 물리쳐 예상을 뒤엎고세계챔피언이되었다。

지난해 11월의 타이틀결정전서 로키·프라토를제압, 王座에올랐던日本의미하라는 1차방어전서무너지고말았다。

뉴욕의 맨해턴대학 3년생인 무어는 80년 모스크바올림픽을 앞두고 미국대표선수로 뽑혔으나 미국이 소련의 아프간 침공에 항의하여 올림픽을 보이코트함으로써 올림픽출전의꿈을 실현시키지 못했다。프로에서 9연승(6KO)을 기록한 무어는 카운터펀치가 좋고 날카로운連打를 구사하는 강타자。무어의 매니저 리온·워싱턴씨는 『강인한 체력, 좋은 컨디션을 유지했기때문에 이겼다』고 말했다。무어는 오는4월24일 南阿의 요하네스버그에서 WBA 동급6위 찰리·웨이어(南阿)와 1차방어전을 벌인다고 미국의 흥행사보브·애덤씨가 밝혔다。【東京=聯合】

金喆鎬 10일방어전

◆…WBC 슈퍼 플라이급 챔피언 金喆鎬의 4차방어전이 10일 大邱서 열리는등 2월들어 관심있는 경기가 잇따라 펼쳐진다。

지난해 8월 WBC 플라이급 챔피언 안토니오·아벨라(멕시코)에 도전, 2회에 KO로침몰했던 金泰式이 13일大邱에서후나기·가즈요시(船木和義·日本주니어플라이급2위)와 재기전을벌인다。

金喆鎬매니저는 『泰式이는 80년12월 마테볼라와의 대전이후 계속 쓰라림을 맛보았지만 아직도 많은 팬들이 그의 펀치력과 재기를 믿고 있다。좌절하지않고 정진하면 멀지않은 장래에 세계도전의 기회가 올것이다』고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27일 OPBF(동양태평양 권투연맹) 주니어미들급 타이틀결정전서 李商虎를 KO시켜 15전15KO승의 기록을 지킨白仁鐵은 14일 大田서 필리핀의 노장 알베르토·크루즈를 맞아 1차 방어전을 벌인다는 소식。

7일에는 鄭巡鉉이 OPBF 주니어페더급 챔피언 윌리·루카스(필리핀)에도전, 문화체육관서12회전을벌인다。

黃忠載 3일出國

◆…오는13일 미국 라스베이가스에서 피피노·쿠에바스(멕시코)와 대결하는 黃忠載가 3일 출국한다。

21승(18KO)의 黃은 『앞으로의 선수생활에 큰영향을 미칠 경기이므로 각오를 단단히하여 쿠에바스와의 경기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쿠에바스는 지난해 11월 라스베이가스에서 열린 무명선수 로저·스태퍼드와의 논타이틀전2회에서녹다운되는곤욕을치른끝에10회판정패를당했음이밝혀졌다。【契】

고국의 향수가 듬뿍어린
미도파백화점 비디오부
연속극, 가요, 문학, 영화, 전설…
454 BLOOR ST. W.
536-1692

주간女性

바둑소식

姜4단에 不計勝

●…지난달27일 한국기원에서 열린 제17기 覇王戰도전 5번기 제2국에서 曺薰鉉覇王은 도전자 姜勳4단을 執白1백56수만에 不計로 격파, 2연승을 기록했다。이로써 曺覇王은 남은 3국중 1국만 이기면 지난해에이어 또다시 覇王位를 방어하게된다。

이번 제2국은 姜4단이 초반부터 장고를 거듭, 曺覇王을 압박해나갔으나 종반들어 완착을 두어 결국 돌을 던졌다。

그런데 姜4단은 지난期에도 도전자로선발돼 曺覇王에 도전했으나 3대0스트레이트로 패퇴했었다。

日棋聖戰3局돌입

●…일본최대의 타이틀인 제6기 棋聖戰(讀賣新聞주최)은 후지사와 棋聖(藤澤秀行)과 도전자 林海峰9단간에 1대1타이틀이 룬가운데 3·4양일간 제3국에 들어간다。

지난달 27·28양일간 삿뽀로에서 둔어진 7번승부 제2국은 黑을든 후지사와 棋聖이 초반부터 맹렬한대시를 거듭, 1백55수에 이르러 중앙의 白大馬(白돌22개)를 포박, 제1국에서의 패배를 설욕했다。

7명 挑戰者결정

●…제26기 國手戰예선전이 끝나 본선진출자 3명이 확정됐다。본선진출기사는 金寅8단, 梁相國6단, 洪太善4단。

이들은 지난기 시드잔류기사인 徐奉洙7단, 姜勳4단, 李相澈4단, 徐能旭6단등과 합류, 7명이 풀리그전으로 도전자를 결정한다。

曺薰鉉覇王戰 방어굳어져

國手戰본선進出 3명확정

젊은棋才 入門을

●…한국기원은 우리 바둑계를 짊어질 신인양성을 위해 棋才가 뛰어난청소년 기사들의 入門신청을 받고있다。자격은 만18세 미만。

현재 한국기원에서 연수를 받고있는 연구생은 12명으로 매주 月·水·金요일에 高在熙6단의 지도로바둑수업을 하고있다。

女流아마바둑大會

●…한국기원여성棋友會는 오는13·14일 양일간 한국기원에서 제2회여류아마바둑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甲組(3급이상)、乙組(4~10급)、丙組(11~15급)로 나누어 열리는데 신청마감은 12일하오 6시 여성棋友會(☎972)나 한국기원총무부(☎819)。【薰】

◇작곡가 朴椿石씨와 가수 李美子가 새곡을놓고 피아노앞에 앉고 섰다。「17년師弟」로서 음악적인 交感엔 단절이 없다。

우리는 콤비
作曲家 朴椿石
歌手 李美子

17년간 大衆歌謠 대명사 君臨

呼稱도 옛그대로、이젠 40·50代

날줄과 씨줄。한 곡의 노래를 짜엮기 위한 작곡가와 가수의 만남은 실과 바늘이다。그들은 17년째 대중의 귓가에 흥얼거리는 인가에 한줄음으로 떠오른다。

작곡가 朴椿石씨(51)와 가수 李美子(41)。그들은 떼어놓을수없는 한국대중가요의 대명사다。65년「진도 아리랑」(KBS라디오드라머주제가)으로 처음 만나 여자의 한과 사랑, 눈물을 한마음으로 노래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65년은 연예인으로 서로 성숙해있던때다。열아홉살때「열아홉순정」으로 데뷔한 李美子는 64년「동백아가씨」를 히트, 정상에 섰다。17살 학생으로 연주활동에 발을 붙인 朴椿石씨는「황혼의 엘레지」로 작곡가로 발돋움, 26세때「비내리는호남선」이 크게 히트, 중견의 자리를굳혔다。

『이 무렵 美子에겐「엘레지의 여왕」이란 별명이 붙었지』(朴椿石) 『朴선생님은「히트朴」으로불렸죠。발표하는 곡마다 인기를 끌어서…』(李美子)

17년을 거슬러 더듬는 師弟의 눈길은 작곡가와 가수를 떠나 때로는 父女같기도, 때로는 나이진 남매같기도한 정감이넘친다。지금까지 李美子가 부른 노래는 1천5백여곡, 朴椿石씨는 2천2백여곡을 지어냈다。그 가운데 朴·李 단짝이 내놓은 노래는 8백여곡, 그중 반정도는 히트곡이다。「흑산도 아가씨」「섬마을 선생님」「황혼의 블루스」「기러기 아빠」「눈물이 진주라면」「그리움은 가슴마다」…。헬수 없이 많은 곡이 대중의 기억에 아직 살아있다。이들의 콤비관계에 단절이 없고 많은 노래가 히트한것은 두사람의 음악성과 서로의 마음을 읽을 만큼의 交感때문일 것이다。그래서 좋은곡과 천부적재질(음색·창법)이 한가락으로 어우러진다。

『신곡취입때 다른 가수는 3~4개월 연습하는데 美子는 2일정도면돼요。「흑산도 아가씨」는 두번 불러본후 취입한 노래입니다』

「美子」「朴선생님」의 호칭이 17년동안이나 그대로 쓰여지고있는 朴·李콤비도 이제 50대와 40대가됐다。【基】

제1회「가톨릭 歌謠大賞」제정

受賞은 歌手아닌 創作人

國內최초 宗敎단체 가요賞

2月13日시상 우수作曲·作詞家 의욕북돋아

가톨릭매스컴위원회(총무 반예문신부)가 한국의 우수가요발굴과 건전가요창달을 위해 제정한 제1회「가톨릭歌謠大賞」시상식이 2월13일 明洞대성당 사도회관에서 金壽煥추기경의 시상으로 거행된다。

「가톨릭가요대상」은 한해의 창작가요를 결산, 우수가요1곡을 선정해 작곡·작사자에게 트로피와 상금(1백만원)을 수여하는 우리나라 종교단체 유일의 가요상。수상대상이 가수 아닌 창작인이라는데 특색이 있다。

『한국인은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노래를 좋아하는것 같아요。어디서나 노래를 들을 수 있어요。가요는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한부분을 차지하며 아름다운 영감을 전해주는 생활양식이라고 믿습니다』

「가톨릭가요대상」의 산파역을 맡은 반예문신부(55·본명 레이먼드·셀리번)는 『이처럼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해줄수 있는 우수한 가요가 많이 창작될 수 있도록 작곡·작사가들을 격려, 창작의욕을 북돋아주는데 가요대상제정의 뜻이 있다』고 밝힌다。

선정대상가요는▲한해동안 인기를 얻은 노래로▲멜러디가 우수하고▲듣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해주는 노래에 기준을 두고있다。제정 첫해인 올해는 각방송국 가요프로담당자들로부터 추천받은 우수가요 32곡을 대상으로 삼았다。심사방법은 1차심사위원 45명(언론·가요계)이 선정한 8곡을 2차심사(심사위원7명)에서 투표로 1곡을 뽑는다。

1차심사에서는「가나다란」「고추잠자리」「그대여」「누구의노래일까」「사랑사랑 누가말했나」「사랑스런그대」「사랑이여」「아름다운강산」「옛시인의노래」등9곡(2곡은 동점)이 선정됐다。

「가톨릭가요대상」은 매년 2월14일 시상식을 가질예정인데 올해만은 14일이 일요일이어서 13일로앞당겼다고。2월14일은 聖발렌틴축일이자 반예문신부의 생일이어서 이날을 시상일로 정했다고한다。

반예문신부는 우리나라가요팬들에게는 낯설지않은 이름이다。가요에 관심이 많아「한국의 마돈나」를 작곡했고 가수金道鄕과 가요「바람처럼 낙엽처럼」을 레코드로 제작, 81년 KBS방송음악대상에서 레코드기획상을 수상했다。또「날개」「별」「당신만을 사랑해」등 국제가요제출품가요의 가사를 英譯했다。

『가톨릭단체가 주는 상이 한국에선 처음이지만 필리핀에서는 몇년전부터 가요뿐만 아니라 영화·TV·소설부문에도 시상하고 있읍니다。우리도 앞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는 이번 가요대상의 상금은 미국에 살고있는 두 누이동생이 내놓은것이라며『앞으로의 상금 마련이 걱정』이라고 했다。반예문신부는 하버드大에서 수학을 전공한후 메리놀대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으며 55년 한국에와 27년째 복음의 씨를 뿌리고있다。【李亨基기자】

山사람의 精神

등산에세이

李仁禎

正直하게 最善을 다한후 하늘의 審判을

세계高峰을 향한 山사나이들의 도전은 그칠줄 모른다。국내의 많은 등반대가 히말라야로, 알프스로 그리고 북미매킨리와 남미아콩가과등지로 도전에 나섰다。이가운데좌절을 딛고 일어선 등정의 감격도있었고 그런가하면 조난의 희생도 겪었다。산악운동에서는 숙명처럼 따라다니는 희비의 교차였다。에베레스트등정이 우리에게 가장 값지고 감동적인 순간이었다면 마나슬루정복은 가장 보람있고 통쾌한 장거였다고 할수있다。마나슬루는 그만큼 한이 맺힌 비정의 산이었기때문이다。

지금도많은 사람들은 히말라야라면 먼저 마나슬루를생각한다。심지어는 세계최고봉 에베레스트(8848m)를 마나슬루(8156m)로 착각하는 사람도있다。세차례에 걸친 도전실패와 16명의 목숨을 앗아간 조난사고등이 마나슬루를 더 유명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80년4월28일 東國산악회마나슬루 등반대가 만난을 무릅쓴 악전고투끝에 마침내 정상에 올라선 그순간 우리는 단순한 감격과는 다른흥분을느꼈다。그리고 이어 허탈감과함께 착잡한 심정에 사로잡혔다。氷河에묻혀 잠들고있는 우리의 山友들의 그숨결、그함성이 들려오는듯 했다。우리 모두의눈에는이슬이 맺히고북바치는 감회에 젖어한동안 말을잊고있었다。

69년 靑嶽山 죽음의 계곡에서 훈련을쌓던 18명의 해외등반대원들은 눈사태에 묻혀 큰 충격을 받았으며 마나슬루에서의 잇단 조난사고로 또다시 슬픔을 씹어야했다。그러나 이때부터 누군가 이들의 원혼을 달래주어야한다고 다짐하게됐다。그런 의미에서 마나슬루공략은 한국산악인 모두의 절대절명의 지상과제였던 것이다。

흔히 등반에서 운이 큰 작용을 한다하지만 히말라야에서는 결코 요행을 바랄수는 없다。오로지 자신의 실력에의해 최선을 다한다음 하늘의 심판을 받는것이다。

분명한것은 히말라야에서 세르파들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과거 각국의 여러 원정대가 세르파에 얹혀가는듯한 등반을 한 실례를 우리는 알고있다。이 경우 진정한 알피니즘의 의의를 잃을뿐더러 세르파들과의 흥정에서 야기되는갈등만을 낳게된다。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곧 산사람의 정신인것이다。

【80 東國산악회 마나슬루등반대장·주식회사 우영 상무이사】

卓球선수 酷使

李壽子 3개월 診斷

金庚子 鬪病 1년간

탁구국가대표선수들이 부상에 시달리고있다。

지난해4월의 유고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대비, 무리하게 연습을 했던 金庚子(第一毛織)가 1년동안 투병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어 이번에는 한국의 간판스타이며 세계선수권대회 銅메달리스트인 李壽子(第一毛織)가 3개월치료의 진단을받아 충격을 주고있다。

李壽子는 지난해10월 허리부상이란 진단으로 국가대표상비군 최종선발전에도 출전하지 못했으나 무리하게 2개월동안의 유럽원정에 참가함으로써 부상이 더욱 악화됐다는 것이다。

李는 부상이심상치않아 지난해12월 제24회 스칸디나비아오픈탁구선수권대회기간중 현지 스웨덴에서 X레이 정밀검사를 받은결과 허리가 아닌 좌골에 심한염증이있는것으로 밝혀졌으며 현지의료진은 선수자신을위해서는 운동을 그만두는것이좋다는 경고까지 내렸다는 것이다。

李는 의료진의 희망에따라 3개월분의 치료약을 가지고 귀국했으나 앞으로 3개월동안 대회는 물론 연습도 할수없게됐다。

金庚子는 지난해초부터 오른쪽손목에 이상이생겨 병원에 입원하는등 치료를받아왔으나 무리하게 세계선수권대회까지 출전, 현재까지 고통에 시달리며 선수생활을 청산할단계에 이르렀다。

한국팀金19개、종합3위목표

11월亞洲게임

대한체육회는 오는11월 印度 뉴델리에서 열리는 제9회 아시안게임에서 韓國이 모두 10개의 금메달을 획득, 北韓을누르고 종합3위를 차지할 수있을것으로 전망하고있다。

체육회는 2일 발간한 국제스포츠정보자료집에서 이같은『제9회 아시안게임 전망』을 밝혔는데 北韓은 최고로 金17개를 획득, 南北대결에서는 지난7、8회 아시안게임에 이어 北韓을누르고 또한번의 승리를 따낼것으로 예상했다。

亞洲서 5개팀확정

世界배구선수권

아시아배구연맹은 2일 9월의 세계여자선수권(페루) 출전대표로는 濠洲와 뉴질랜드 그리고 10월의 동남자선수권엔 濠洲및 印度가 각각 결정됐다고 배구협회에 알려왔다。

韓國은 지난78년에 거행된 선수권에서 남자가 4위、여자가 3위를 각각 차지하여 자동출전권을 얻고있는데 이번에도 日本과 中共남녀가 모두 6위이내에 입상함으로써 아시아에선 남녀5개팀이 출전하게된 것이다。

한편 24개팀이 출전하여 패권을 가릴 세계선수권에는 현재 남녀12개의 자동출전팀이 확정돼있는데 오는2월말까지는 각대륙별 출전팀을신청받는다。

女性界 소식

上體 肥滿型여성 糖尿病·위험

發病확율보통型의 8倍 높아

비만증의 여성중에서도 上體肥滿型인 여성이 보통체구의 여성이나 하체비만형 여성보다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8배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美國위스콘신大醫大의 아메드·키스바박사는 지난 6년동안 비만여성 43명과 정상체중여성 9명의 건강상태를 체크해온결과 비만여성에게 당뇨병 발병률이 높은것을 밝혀냈다。그런데 특이한것은 여성의 비만을 상체비만형과 하체비만형으로 분류했을때 상체비만형여성에게서 당뇨병의 공통적징후인 혈중인슐린 혈당치가 높은것을발견했다。【聯】

中大演映科 졸업劇

삼일로 창고극장은 이오네스코作、金正鈺譯、김봉열연출「대머리 여가수」를 10일까지 창고극장에서 공연한다。공연시간은 하오4시·7시。中大연극영화과 금년도 졸업생들이 모여 연극무대 데뷔작으로 염필호 김지영 김종원 방은미등이 출연。

裵幸淑 귀국독창회

소프라노 裵幸淑 귀국독창회가 11일 하오7시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열린다。피아노 반주林憲媛씨。

제일식품
"많이 달라졌읍니다"
大세일
소문없이 싸게 팝니다.
1차 왕림해 주셔서 가격을 비교해 보세요.
언제든지 가정에 배달해 드리니 전화주문도 환영 합니다.
712 BLOOR ST. W. (아리랑하우스 옆) 전화 : 532—1054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FLOOR LADY 또는 MAN구함(수퍼바이저)
스포츠웃 공장에서 일을 보실 능력있는 분
위치 : 퀸×더프린
신청 : 42 GLADSTONE AVE.
전화 : 537－0400
신청시간 : P. M. 5 : 00～7 : 00

경험있는 남자 헬퍼구함.
(Full 타임)
☎597－1115(Mr. 박)

스토아 캐쉬어 구함.
(영 × 에그린톤)
☎251－7031(5시 이후 연락바람)

동부지역에있는 가게에 오후7시이후 파타임 캐셔로 일하고자함 ☎ : 421－6000(EX. 323)오후5시까지
293－6138오후5이후

경험있는 바느질및 재봉사구함
나일론스포츠웃감임
신청 : 42 GLADSTONE AVE. (퀸×더프린)

번역, 통역 :
각종서류 번역및 법정통역, 정부기안 통역해드림
☎ : 281－1677 이 영 화(전대학강사)

건강, 사업, 결혼, 애정문제에 걱정이 있으신 분은 지금곧 "마리수"를 찾으세요.
많은 도움이 되어 드릴것입니다.
☎ : 463－9138

매매및 양도

"꿀"팝니다(토종꿀과 로얄젤리)
30 DEWSON ST.(오싱톤×칼리지)
반드시 영어로 문의하실것 ☎ : 534－0563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8,000, 머신 $800, 렌트 $550 살림집 포함
☎ : 1－387－3983 권리금 $10,000

버라이어티, 그로서리, 스낵·바, 드라이 크리닝을 겸해 할수있는 상점, 살림집 포함. (베더스트×로렌스)
오전10시～오후8시 ☎ : 783－0134

집안사정으로 급히 버라이어티가게 팝니다.
렌트 $570(월) 리스 5년 + 5년
주매상 $5,200 ☎298－7635(Mr. 정)

COMMERCIAL BUILDING과 COIN LAUNDRY
편안하고 안전한 비지네스
사정상 급매코저함.
(블루어 × 오싱톤)
☎ : 532－7094(낮), 241－8058(밤)9시30분까지

서 쪽지역의 버라이어티 스토아를 사고자 함.
파 실분 연락 바람.
☎ 749－9649 Mr. 엄

그로서리 가게 팝니다 :
주매상 $7,000, 렌트 $700(월), (2 베드룸 아파트포함) 포함), 리스 5년+5년 옵션, 아스킹 $70,000+스탁.
☎ : 769－5956

자동차 급매, 75년형 로얄 모나코 A-1 콘디숀.
3～4년은 아무 이상없이 탈 수있음. 가격 $950
☎ 530－1491

그로서리와 버라이어티 가게
주인이 병환으로 급매코저함.
주매상 $6,000 ☎486 6455

하이웨이 24, 89, 10(SHELBURND)에 버라이어티 스토아 붙은 가스 스테이션, 코너위치, 년매상 100만달러, 총수익 10만달러, 순수익 6만달러, 권리금 6만달러+스탁, 곧 몬트리얼 은행이 개점하므로 더욱 매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좋은위치임 ☎ : (519) 925－5210
MRS. 윤, 오후3시 이후연락바람

"집을 팝니다"
- 4베드룸, 쎄미 디태취 백 스프레이
- First 몰개지 10.25% $31,000 (Aug. 83)
- 가격 $79,900
- 미시사가 지역.

☎(B)752－6702, (R)275－1499(Mr. 박)

하우스 렌트

교통 편리한곳에 2베드룸(2, 3층)세놓음.
집주인 좋음 월 $420
☎ : 532－9139 (Mr. 로드리고)

재미있는 주간여성
식품점서 판매중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 : 751－9236, 757－2106 홍진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 관 헌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D. F. McALLISTER R. E. LTD.
투자 전문(IC & I)
(B)497－0600, (R)298－8558 김시성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미 용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킴스 미용실
B)532－7094 R)248－2437(코리아하우스 뒤

보 · 석

다이아몬드 · 스타=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Mr. LEE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보수·가게신설·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김부원
☎ : (B)245－5544(PAGING)2790, (R)255－2161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목공소 FineWoodwork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676•1173 769•9468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싸우나 설치, 진열장 찬장등 가구제작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 : 534－1085 김 춘 탁 619 BLOOR ST. W.

60 MINUTE PHOTO LAB
- 1시간에 모든 현상이 가능
- 교포께 특별히 10% 할인해 드립니다.
- 프린트 싸이즈(4×6)품질보장
- KNOB HILL FARM DIXIE MALL ☎ : 274－4323
- 50 BLOOR ST. W. ☎ : 967－7121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commercial ·art photos ·weddings ·VIDEO 촬영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운전학교

오 행 근 운 전 학 교
423－3035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때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신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시설 · 판매 · 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주소를 이전하실때 3일전에 꼭 변경통보를 해주십시요.

악 기 점

SOO PIANO SERVICE(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용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양 장 점

샐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인벤토리

INVENTORY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 일체). 변 달 원
20 ROGERS RD. ☎ : 651－9324(B 226－5430(R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체어 · 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삼푸 크리닝

꽃 집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 김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 안)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 배달함.
875 JANE ST. TOR. ☎ : B)769－0609 R)242－5194(여정용)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 751－5851(B), 757－6711(R) 이동환

한 방 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뜸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웅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원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8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스타보로 제너랄 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하르빈 한약상사
-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 정확한 진단과 처방
- 한약으로 암환자를 완치
-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 : (B)536－6854 (R)743－0752

＊동 양 한 약 상 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 병 섭 M.C.I.C. R.M.
-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거의다가 서임)

VISA 또는 MASTER CHARGE는 CASH이상 환영.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 : 960－5736(B), 844－0178(R)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 : 273－7800 MISSISS.

태 권 도

박종수 태권도장 사범 :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웨스톤×로렌스)로브로 앞

기 타

번역 통역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203 TOR.
M4A 2R1 ☎ : 759－9505(5시이후)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O' Kim Embroidery
각종 꽃수, 명찰, 마크, 아동복, 부인복 Covering등. ☎ : 633－9341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혜숙

ZAP SUREKILLER 366－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통닭. 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전문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함.
☎ : 537－0432(미스타. 리)

구독신청(월～토)
☎ : 533－2361

현명한 광고의 선택은 현명한 투자방법입니다.
＊사업확장을 계획하십니까?
＊광고국에 문의하십시오.
533～2361～4 (월～토)

風雅와 陰謀 ㉛

流星의 賦

<300>

李炳注 作
李友範 畵

히데쓰구가 조선무사(朝鮮武士)들의 무기(武技)를 보고 싶다고 신청해 온 것은 홍계남이 그와 연석(宴席)을 같이 한 날로부터 달포나 지나서였다。

처음 종의지(宗義智)를 통해 이 말이 있었을 때 부사 김성일은

『우리는 무기를 보이고 보고 하기 위해 온 소요객이 아니다』

하는 뜻으로 거절하려고 했으나

『놈들이 우리를 깔보지 않게끔 하기 위해 시위(示威)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는 황진(黃進)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일단 검토해 보기로 했다。

정사 황윤길이

『시위를 한다는건 나쁘지 않겠지만 과연 시위하여 상대방을 위압할만한 무기의 소유자가 있겠느냐』

고 물었다。

『군관(軍官) 홍계남은 기사(騎射)에 능하고 검술(劍術)에 능할 뿐 아니라 부에 일반에 통하지 않은 바 없으니 놈들에게 보여줄만할 것입니다』

하고 황진이 보고 했다。

『그렇다면야 주저할 게 없지 않은가。우리가 무리를 해서 억지로 뽐내자는 것이 아닐진대、그들의 대접에 응분한 예의를 다하는 뜻으로서도 무난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는 황윤길의 승낙이 떨어졌다。

때는 음력10월 초。 아라시야마(嵐山)의 단풍이 쾌청의 날씨 속에 아름다운 홍엽(紅葉)을 이루고 있었다。 장소는 산죠오가와라(三條河原)의 일부에 흑백(黑白)으로 된 만막(幔幕)을 둘러 만들었다。

서쪽으로 관람대(觀覽臺)가 설치되어 히데쓰구를

비롯한 공경(公卿)들이 자리를 잡았다。 일본무장(武將)이 없었던 것은 당시 수길을 따라 무장들의 대부분이 동북방면으로 출전중이었기 때문이다。

무예의 시범은 명궁수(名弓手) 배명엽(裵命燁) 부터 시작되었다。 삼백보 전방의 나무에 손바닥 크기의 지편(紙片) 다섯개를 달아놓고, 바람에 날리기도하여 가늠키 어려운 목표를 한개 어긋남이없이 쏘아맞혔다。 그것 만으로도 관중들의 칭찬을 받기에 족했는데、다음에 나온 고정남(高正南)이란 군사(軍士)의 돌팔매질이 또한 일품이었다。 진흙으로 진흙을 이겨 사람 형상으로 만든 것을 2백보쯤 전방에두고 팔매질을 해서 처음 이쪽으로 양 귀를 떼고、다음은 코를 치고 이마를 때리는등 도합 20수쯤으로 그 사람의 형체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돌팔매는 원래 무기없는 서민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안출된 자연발생적인 방어수단이며 공격수단이었다。 기록에 의하면 선조 당시 전라감사 유희춘(柳希春)이 중종5년의 경오왜변(庚午倭變) 때 안동(安東) 투석군(投石軍)들의 공이 적지 않았던일을 감안하여 군관민(軍官民)에게 투석술(投石術)을 권장하고 순시때 경연대회를 열어선 우승자에게 후한 상포(賞布)를 주었다고 나타나 있다。 그날의 선수 고정남은 특히 투석술이 우수하다고 해서 상위군사(上位軍士)로 뽑혀온 사람이다。

무예시범자 세번째로 등장한자는 명명을 독수리라고 하는 조인식(趙寅式)이었다。 그는 장창(長槍)과장검(長劍)을 좌우의 손에 나눠쥐고 장창의 힘을 빌어 지상 7、8척 위로 도약해선 바른 손의 장검으로 장대 끝의 목표물을 베는 묘기(妙技)를 보였다。

LISBON AUTO COLLISION INC.
●토잉써비스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R)439－6548
이영두, 이건학